

II.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1. 개화사상의 형성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

II.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1. 개화사상의 형성

1) 개화사상의 형성과 배경

구미 열강이 18세기 중엽 동아시아에 침투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불평등조약에 의거하여 중국과 일본을 개항시킨 것은 조선왕조의 선각자들에게도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淸)이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하여 굴욕적인 南京條約(1842)을 체결하고 5개 항구를 개항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인에게 치외법권까지 인정한 사실은 중국의 선각적 지식인들을 위기의식 속에 몰아넣었음은 물론이요, 조선의 선각적 지식인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여 중국이 당면한 사태에 우려의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의 남방에서는 洪秀全이 1850년에 ‘太平天國 농민혁명운동’을 일으켜 淸왕조 타도의 반란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소식도 점차 조선왕조의 선각적 지식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1856년 10월에 ‘애로우(Arrow)호 사건’이 일어나, 영국과 프랑스의 동양함대는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여 廣東을 점령하고 天津을 공격하였다. 중국은 이 서양의 무력에 굴복하여 天津條約(1858)을 체결해서 다시 천진을 비롯한 10개 항구와 楊子江을 서양 열강에게 개항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국이 이 조약의 비준과 실행을 지연시키려고 하자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다시 무력 공격을 시작하여 1860년 7월에는 천진을 점령하고, 8월에는 중국의 수도 北京을 점령하여 버렸다. 청국황제는 熱河로 피란을 가고, 청국은 또다시 서양 열강의 무력 침략 앞에 굴복하여, 1860년 9월 ‘北京

條約'을 체결하여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북경에서 겨우 철수시켰다. 북경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天津의 개항, ② 九龍半島의 할양, ③ 배상금 1,600만 달러의 지불, ④ 서양인들에게 천주교(서학) 포교의 완전한 자유와 교회당 설립 자유의 허용, ⑤ 서양 신부들에게 토지·가옥의 건축 또는 임대차 자유의 허용, ⑥ 서양인에 의한 중국인 노동자(coolies : 苦力)의 모집과 해외 송출의 허용 등이었다. 이것은 매우 굴욕적인 패자의 강화조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포착하여 북방으로부터 위협을 가하는 제정 러시아의 요구에 중국(청)은 굴복해서 1858년에는 러시아와 '아이훈(愛琿)조약'을 체결하여 黑龍江 이북의 시베리아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해 주었으며, 또한 1860년에도 러시아와 또다른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沿海州를 러시아에 할양해 주었다. 그 결과 조선왕국은 1860년부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가 되었다.

한편 일본은 18세기에 들어온 이래 서양 열강으로부터 통상조약체결과 개국 압력을 받으면서 이를 거절해 오다가 1853년 7월 미국의 페리(M. C. Perry)가 지휘하는 군함 4척의 함포위협을 받고 결국 굴복하여 1854년 3월 미국과 제1차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2개 항구의 개항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1856년 8월에는 미국과 불평등조약의 내용을 가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6개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 전면적 개국 단계에 들어갔다. 일본은 1854~56년의 기간에 서양각국과의 통상무역에서 무역적자가 대규모로 누적되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을 중심으로 한 사무라이 일부에서 “서양과의 무역에서 손실받은 것은 조선을 정복하여 조선의 금·은·물산의 이익을 취하여 메꾸자”는 ‘征韓論’이 대두하여 교육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왕조의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조선과 중국의 이웃관계를 이와 입술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입술인 중국의 몰락이나 멸망은 이빨인 조선의 이를 시리게 만든다고 보고 있었다. 조선의 조정과 일부 관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양 열강의 총력도 아닌 두 나라 동양함대의 공격 앞에 수도 北京을 점령당하고 청국 황제가 熱河로 피란가는 형편을 보고, 조선 조정은 경악하여 1861년 1월에 위문사절단을 파견하는 형편이었다.¹⁾

중국이 서양의 무력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여 수도 북경이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곧 서양의 무력이 조선에도 닥쳐와 공격을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이윤추적을 위한 불평등통상조약의 체결이 강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조선왕조와 한국민족이 만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열강의 강대한 침략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떨어지게 되는 ‘민족적 위기’를 바로 맞게 되었음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조선왕조의 전근대 사회체제는 안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양반관료들은 자기들이 제정한 국가의 법률과 제도도 준수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가렴주구를 강화하여 이른바 ‘三政의 문란’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 농민들과 양인·천민의 하위신분층은 가렴주구 폐지와 양반신분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연이어 ‘민란’까지 일으켰다. 예컨대, 1811년 ‘홍경래란’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여 그후 해마다 끊임없이 대소 규모의 ‘민란’이 일어나서 조선왕조의 북부지방에 대한 통치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예컨대, 1862년에는 ‘진주민란’을 비롯하여 전국 30여 개 군에서 ‘민란’이 일어나 조선왕조의 남부지방에 대한 통치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는 가히 ‘민란의 세기’²⁾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민란들이 일어나면서 양반신분 사회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만일 조선 조정과 한국민족이 내부에서 나온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양반신분사회 개혁 요구를 흡수하여 실현하지 못할 때에는 서양 열강의 도전 앞에서 민족공동체가 분열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전근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의하여 조성된 이 위기는 한국민족이 18세기 중엽에 맞은 전근대사회의 ‘체제적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8세기 중엽에 한국민족은 이러한 ‘민족적 위기’와 전근대사회의 ‘체제적 위기’를 중첩하여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민족은

1) 《哲宗實錄》권 13, 철종 12년 정월 정미.

2) 愼鍾度,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폐지〉(《奎章閣》9, 서울大, 1985; 《韓國近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99쪽).

자기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면서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족적 위기’와 ‘체제적 위기’를 동시에 중첩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19세기 중엽 조선왕조 사회에서 선각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민족적 위기’와 ‘체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양 열강의 침투 압력 속에서도 이러한 중첩된 위기를 타개하고 도전해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들이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3대 사상이 널리 아는 바와 같이 ① 개화사상, ② 동학사상, ③ 위정척사사상이었다.

2) 개화사상의 형성

한국의 개화사상은³⁾ 조선왕조 후기의 實學사상을 계승하고 중국으로부터 구입해 온 新書 등을 도움으로 하여, 1853~1860년대에 중언출신 선각적 지식인들과 양반출신 선각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국의 개화사상의 비조는 널리 아는 바와 같이 吳慶錫(1831~1879)·劉鴻基(1831~1884?)·朴珪壽(1807~1876) 등이었다.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개화사상을 형성한 선각자는 오경석이었다.

亦梅 오경석은 8대를 역관을 지낸 중인 역관의 집안에서 1831년에 태어나, 16세 때인 현종 12년(1846)에 譯科의 식년시에 漢學(중국어)으로 합격하였다. 그는 16세 때부터 중국어 통역관이 되어 司譯院에서 수습 통역관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하였다.⁵⁾

3)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자 〈論說〉은 ‘開化’의 용어가 ‘開物成務 化民成俗’에서 취하여 조립한 용어이며, ‘사물의 이치를 지극히 연구하고 지극히 편리하게 하여 그 나라의 일을 時勢에 합당하도록 극진한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요지의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開化사상은 조선왕조 말기인 1853~1860년대부터 형성되어 발전한 자주근대화·변혁·진보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李光麟, 〈開化思想研究〉(《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19~45쪽.

——, 〈開化思想의 形成과 發展〉(《韓國史市民講座》4, 1989) 참조.

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일본 岩波書店, 1980) 참조.

5) 愼鏞度,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歷史學報》107, 1985;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1987) 참조.

오경석이 家塾에서 공부할 때 家學으로 학습한 것은 貞蕤 朴齊家(1750~1805)의 실학이었다. 그는 박제가의 실학과 함께 그의 시문과 서화까지도 학습하였다. 현재 일부 남아 있는 오경석의 일부 장서에는 박제가의 문집인 ① 《貞蕤稿略》(사본 1책), ② 《貞蕤稿略》(清版 1책), ③ 《貞蕤詩抄》(사본 1책), ④ 《楚亭小稿》(사본 1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본들은 오경석이 직접 자필로 정성스럽게 필사하면서 스스로 학습한 박제가의 저작들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정유고략》은 청국에서 활자로 간행한 책을 다시 정성스럽게 친필로 필사한 것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오경석의 가학은 박제가의 학문이었으며, 오경석이 박제가를 얼마나 열심히 사사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오경석이 남긴 장서 중에서 이처럼 정성들여 필사하고 있는 것은 정유 박제가와 藕船 李尙迪의 문집들 뿐이었다.

오경석은 그의 《天竹齋筭錄》에서 박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朴楚亭 齊家是 일찍이 正祖에게 인정을 받아 別資官이 되어 세 차례나 燕京에 가서 당시의 명사들과 교제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주고받은 시문들은 陳雲伯의 《畫林新詠》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가 극단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楚亭은 일찍이 어떠한 사물에든지 點染되는 일이 없었다(吳慶錫, 《天竹齋筭錄》; 吳世昌, 《槿域書畫徵》, 201쪽).

박제가의 학문과 시문이 극단적이었다고 전하는 세평에 대하여, 오경석이 그것은 오해로 전해진 것이라고 자신있게 단정하고, 박제가는 어떠한 사물에든지 혹하여 물드는 일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박제가의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경석이 또한 학습한 학문은 秋史 金正喜(1786~1856)의 실사구시적 금석학이었다. 오경석은 김정희 금석학을 열심히 배우고 큰 영향을 받았다. 오경석의 저서인 《三韓金石錄》의 맨 아래 수록되어 있는 〈高句麗故城刻子二種〉 중의 1종과 〈眞興王巡狩碑〉는 바로 김정희가 발견한 것과 판독한 것을 오경석이 현지 답사하여 확인하고 수록한 것이었다. 오경석은 금석학과 실사구시의 방법론에서 김정희를 계승하고 있으며,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은 김정희의 《金石過眼錄》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

회 서체와 서법에 대한 오경석의 상찬도 대단하여 그는 북경에서 중국의 금석학자들과 서화가들에게 김정희의 글씨폭을 빌려주고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⁶⁾

또한 오경석이 직접 스승으로 모시고 학습한 것은 우선 이상적(1804~1865)의 학문이었다. 이상적은 중인출신 역관으로서 오경석의 아버지의 친우였으며, 오경석을 직접 가르친 오경석의 스승이었다. 이상적은 역관의 서자로 태어나서 1825년 역과 식년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수재였다.⁷⁾ 그 후 이상적은 한역관으로서 12차례나 중국을 다녀왔으며, 국내에서는 추사 김정희에게 배우고 중국에서는 翁方綱·吳崇梁·劉喜海 등 금석학 및 서화의 대가들과 교유하면서 자기의 독자적 경지를 이룩한 대가였다. 그는 서필과 금석학에 일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매우 능하여 그의 시는 국왕 憲宗이 애송하였다. 이 때문에 이상적의 문집을 낼 때에 현종이 그의 시를 애송했다고 해서 《思誦堂集》이라고 이름하였다. 오경석은 이 문집을 중국에 가지고 갔으므로 그가 북경에서 교제한 친우들 사이에 널리 애독되었다.⁸⁾ 이상적과 그의 스승 김정희와의 관계도 매우 두텁고 긴절한 것이어서, 예컨대 김정희의 유명한 〈歲寒圖〉는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상적을 생각하며 그려보낸 것이었다.⁹⁾

오경석은 이러한 이상적을 스승으로 하여 그로부터 중국어뿐만 아니라 금석학과 서화와 시문을 배웠다. 이에 오경석은 이상적의 지도로 어려서부터 금석과 서화에 일찍 개안하여 그의 학문을 형성, 발전시켰다. 그리고 오경석이 1853년 처음으로 북경에 갔을 때 처음부터 중국의 금석학과 서화의 대가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스승 이상적의 소개와 닭아놓은 친교에 의거한 것이었다.

6) 《燕京書簡帖》, 〈周棠의 亦梅 吳慶錫에게의 五月十七日字 書簡〉 참조.

7) 《譯科榜目》, 제2책, 道光乙酉式年條, 26쪽 참조.

8) 《燕京書簡帖》, 〈吳鴻恩의 亦梅에게의 初六日字 書簡〉·〈李士綦의 亦梅에게의 二月三日字 書簡〉 참조.

9) 吳慶錫의 아들 吳世昌은 〈歲寒圖〉가 발견되자, 그 題跋文을 써서 이 그림에 첨부하고, 이 그림은 金正喜가 李尙迪에게 보낸 것임을 밝히면서, 두 사람의 두터운 情誼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오경석의 학문과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내의 두 개의 흐름이 뚜렷하게 부각됨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北學派 實學者인 박제가의 학문의 영향이다. 둘째는 김정희→이상적의 實事求是의 金石學과 書畫學의 영향이다. 이 두 개의 흐름은 모두가 넓은 의미의 ‘實學’으로서, 오경석은 직접적으로 실학을 배우고 계승하여 그의 학문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오경석은 23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인 1853년 4월에 중국어 통역관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의 수도 北京에 가서 이듬해 3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접 관찰했고,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진 중국의 동남지방 출신 청년선비들과 교유하여 견문이 더욱 넓어지고 사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오경석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기록하였다.¹⁰⁾

癸丑年(1853)으로부터 甲寅年(1854)에 걸쳐서 비로소 燕京에 遠遊하게 되어 東南의 博雅之士들과 교제하고 見聞이 더욱 넓어졌다. 元·明 이래의 서화 百十品을 차츰 구득하게 되고 三代 秦·漢의 金石, 晉·唐의 碑版도 수백 종을 넘었다. … 내가 이들을 구득함이 모두 수십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고, 千萬里 밖의 것이라 心神을 大費하지 않고서는 가히 쉽게 얻을 수 없었다(《天竹齋筭錄》, 《槿域書畫徵》, 251~262쪽).

오경석은 제1차로 북경에 간 1853년부터 금석과 서화를 구입하는 중에 중국 동남지방으로부터 과거를 보러 수도 북경에 올라와 체류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선비들을 사귀었다. 오경석은 그 후 1859년까지는 4차례 북경을 다녀왔고, 일생 동안에는 모두 13차례 북경에 다녀왔다. 초기에 오경석이 교제한 중국의 청년 선비들은 현재 그의 서한에 남아있고 인물만도 약 60여 명이 된다. 이 중에는 그후 오경석이 개화사상을 형성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洋務派 개혁론자가 된 程祖慶·阿秋濤·張之洞·潘曾綬·潘祖蔭·吳鴻恩·孔憲彝·王軒·萬青藜·顧肇熙·溫忠翰·周壽昌·謝維藩·王懿榮·吳大澂 등 다수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여기서는 書畫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 밖에도 時務에 見聞이 더욱 넓어진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표 1〉

오경석의 북경행 일람표

회 차	연도와 기간	正 使	副 使
1	1853년 4월~1854년 3월	姜時永	李謙在
2	1855년 10월~1856년 3월	趙得林	俞章瓊
3	1856년 10월~1857년 3월	徐載淳	任百經
4	1857년 10월~1858년 3월	慶平君 李	任百經
5	1860년 10월~1861년 3월	申錫愚	徐衡淳
6	1862년 10월~1863년 4월	李宜翼	朴永輔
7	1863년 10월~1864년 3월	趙然昌	閔泳緯
8	1866년 5월~1866년 10월	柳厚祚	徐堂輔
9	1868년 윤4월~1868년 8월	·	·
10	1869년 8월~1869년 12월	李承輔	
11	1872년 7월~1872년 12월	朴珪壽	成霽鎬
12	1873년 10월~1873년 3월	鄭健朝	洪遠植
13	1874년 10월~1875년 3월	李會正	沈履澤

오경석은 이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조선에도 닥쳐올 위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중국의 동남방 출신 학자들이 서양 열강의 국정을 소개 해설하고 중국의 대응책을 논의한 새로 간행된 ‘新書’들을 북경에서 다수 구입하여 읽고 귀국할 때는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연구한 결과 1853~1859년에 조선왕조 최초로 ‘開化思想’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회고하여 기록하였다.

나의 아버지 吳慶錫은 한국의 譯官으로서 중국에 파견되는 동지사 및 기타의 使節의 통역으로서 자주 중국을 왕래하였다. 중국에 체제 중 世界各國의 角逐하는 상황을 見聞하고 크게 느낀 바 있었다. 뒤에 열국의 역사와 各國興亡史를 연구하여 自國政治의 부패와 세계의 대세에 失脚되고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언젠가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크게 개탄하는 바가 있었다. 이로써 중국에서 귀중할 때에 각종의 新書를 지참하였다. …

아버지 吳慶錫이 중국으로부터 新思想을 품고 귀국하자, 평상시 가장 친교가 있는 우인 중에 大致 劉鴻基란 동지가 있었다. 그는 학식과 인격이 모두 고매 탁월하고 또한 교양이 심원한 인물이었다. 오경석은 중국에서 가져온 각종 신서를 동인에게 주어 연구를 권하였다. 그 뒤 두 사람은 사상적 同志로서 결합하여

서로 만나면 자국의 형세가 실로 風前の 燈火처럼 위태하다고 크게 탄식하고 언젠가는 一大革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상의하였다.

어떤 날 劉大致가 오경석에게 우리 나라의 개혁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뭇는 먼저 동지를 北村(북촌이라고 하는 서울의 북부는 당시 상규계급의 거주구역임)의 양반자제 중에서 구하여 革新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筠篲紀念會, 《金玉均傳》, 上卷, 東京, 1944, 48~49쪽).

여기서 문제를 분석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오경석이 중국에 체재 중에 세계각국의 각축하는 상황을 견문하고 크게 느낀 바 있던 시기, ② 열국의 역사와 각국 흥망사를 연구하여 자기 나라 정치의 부패와 세계대세에 뒤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언젠가 나라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개탄하여 오경석이 개화사상을 형성한 시기, ③ 중국에서 귀국할 때 각종의 新書를 구입하여 지참해 온 시기, ④ 오경석이 자기가 구입해 온 신서들을 가장 절친한 친구 유흥기에게 주어 연구를 권고한 시기, ⑤ 신서를 연구한 결과 유흥기도 개화사상을 형성한 시기, ⑥ 오경석과 유흥기가 개화사상의 동지로서 결합한 시기, ⑦ 우리 나라의 형세가 風前の 燈火와 같이 위태하게 되었다고 보고 일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합의한 시기, ⑧ 우리 나라의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촌의 양반자제 중에서 인재를 구하여 개화사상을 교육해서 혁신의 기운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시기, ⑨ 그 결과 오경석과 유흥기가 북촌의 양반자제들인 김옥균·박영교 등과 접촉하게 된 시기 등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기록 중에서 오경석의 개화사상의 형성 시기인 ①~③은 1853~1859년의 기간이었음이 명백하다. 오경석이 남긴 200여 통의 중국인과의 편지 속에는, 중국인 程祖慶이 오경석의 제1차 북경행 때(1853~1854)에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가 1통 있는데, 이 편지에는 오경석이 書目을 만들어서 정조경으로부터 《潛研堂全書》 등 다수의 책들과 금석문을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地圖 2장을 모사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오경석은 1853년 제1차 북경행 때부터 책들을 구입하고 지도를 빌려 모사하는 등 신서 구입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오경석은 제1차 북경행 때인 1853년부터 구입한 신서를 북경의 숙소에서 읽으면서 그의 개화사상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오경석이 제1차로 북경에 가서 체류한 1853년의 중국의 형세는 위기로 충

만되어 있었다. 이 때의 중국의 형편은 영국의 침략행위로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여 청국은 2년간 분전했으나 패전하고 말아, 앞서 쓴 바와 같이 결국 1842년 8월 南京條約을 체결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영국에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香港)을 영국에 할양해 주고 廣東·廈門·福州·寧波·上海의 5개 항구를 개항하여 영국의 자본주의 상품들을 물밀듯이 중국에 들어왔으며, 서양 열강들이 중국에서 각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침략을 감행한 때였다. 이에 대응하여 또한 1850년에는 洪秀全이 남방에서 무장 봉기하여 1851년에는 太平天國의 수립을 선포했으며, 청국 조정은 이의 ‘진압’을 위해서 영국군을 차병하여 불러 들여서, 오경석이 북경에 간 1853년에는 남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이에 중국의 선각적 인사들과 예민한 청년들 사이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고,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구하기 위하여 간행된 ‘신서’들이 읽혀지고 있던 시기였다.

오경석은 1853년~1858년 사이에 4차례나 북경을 다녀왔는데, 그 때마다 신서를 구입하여 추가하였다. 오경석이 1858년까지 구입한 신서로 현재 알려져 있거나 남아있는 《海國圖志》는 서양열강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지리와 역사, 국방, 籌海, 병기와 전술을 설명한 책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서양의 과학기술과 선거제도·정치제도 등도 소개한 책이었다. 《해국도지》에는 50권으로 된 1844년판, 60권으로 된 1849년판, 100권으로 된 1852년판이 있었다.¹¹⁾

또한 姚滌山이 지은 《粵匪紀略》은 1855년에 간행된 책으로서 1850년 홍수전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태평천국을 선포했다가 ‘진압’될 때까지의 태평천국운동의 역사서이다. 현재에도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을 오경석이 구입해 온 사실은 오경석이 당시의 중국이 처한 위기에 민감하게 큰 관심을 갖고 연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11) 李光麟, 〈‘海國圖志’의 韓國傳來와 그 影響〉(앞의 책), 2~18쪽 참조.

〈표 2〉 오경석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新書의 일부

	서명	저(편)자	간행연도	비고·내용
①	해국도지	魏源	1844	이 책의 刊本에는 세 가지가 있는바, 1844년판은 50권(古微堂活字印本), 1849년판은 60권(同重訂刊本), 1852년판은 100권으로서, 이 100卷本이 重刊定本이다. 그 내용은 洋夷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세계각국의 地理와 歷史, 國防, 籌海, 兵器戰術을 설명한 것이며, 영국을 중심으로 서양의 과학기술과 선거제도 등도 소개되어 있다.
②	영환지략	徐繼畬	1850	10권으로 된 세계 각국의 지리서이다. 6대주별로 세계지리를 地圖로 설명하고, 서양 열강의 국가별 지도와 地志를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역시 洋夷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洋務 목적으로 편찬한 新書이다.
③	博物新編	(英)合信저 中國人譯	1855	上海의 海墨海書館에서 간행한 全3集의 서양 과학기술 해설서이다. 제1집에 ① 地氣論, ② 熱論(熱氣機關圖, 火輪船圖 등과 그 해설 포함), ③ 水質論, ④ 光論(현미경圖와 해설 포함), ⑤ 電氣論(각종 電氣機器圖와 그 해설 포함) 등을 비롯해서 제2집과 제3집에 서양자연과학의 부문별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④	粵匪紀略	姚滌山	1855	1850년 廣西省 桂平縣 金田村에서 洪秀全이 중심이 되어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太平天國을 선포했다가 ‘진압’될 때까지의 태평천국운동의 歷史書이다. 北京琉璃廠刊本이며, 현재도 葦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⑤	北徼彙編	何秋濤	1858~60	오경석의 친우 何秋濤가 1858년경에 저술한 中·露關係에 대한 地理와 歷史書로 처음에는 6권이었다. 오경석의 이 본의 일부를 밀사해 왔다. 何秋濤는 여기에 자료를 증보하여 80권으로 만들어 淸 황제에게 보여서 《朔方備乘》이라는 책명을 얻었다. 활자로 간행된 것은 그 아들의 요청에 의해 李鴻章의 지원으로 1881년에야 이루어졌다.

	서명	저(편)자	간행연도	비고·내용
⑥	揚水機製造法	不明		풍력을 이용하여 강변에서 揚水하는 기계의 제조법을 圖解까지 넣으며 설명한 책이다. 오경석이 친필로 북경에서 필사해 온 책이다.
⑦	地理問答	서양인의 저서의 편역	1865	世界地理를 83회의 문답으로 해설한 책이다. ① 지구, ② 亞細亞各國志, ③ 中國各省圖說, ④ 歐羅巴各國志, ⑤ 亞非利加各國志, ⑥ 北亞美利駕各國志, ⑦ 北亞美利駕各國志, ⑧ 阿西亞尼西洲 群海島志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⑧	海國勝遊草	斌椿	1868	斌椿이 5개월간에 걸쳐 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한 見聞紀行書이다. 프랑스·영국·화란·스웨덴·덴마크·독일 등을 여행한 기록이다.
⑨	天外歸帆草	斌椿	1868	斌椿이 5개월간에 유럽여행을 마치고 3개월간에 걸쳐 귀국하면서 견문한 것을 詩와 紀行文으로 쓴 책이다.
⑩	中西見聞錄		1872~74	北京의 京都施醫院에 고병되어 있던 미국 宣敎醫師들이 서양의 자연과학, 기술,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중국인에게 소개하던 월간지이다. 영어명칭은 The Peking Magazine이다. 현재 1874년도분까지 葦倉文庫에 수장되어 있다.

오경석은 박제가·김정희·이상적 등의 실학과 그가 중국 북경에서 체험한 견문과 위에서 든 新書들을 연구한 결과로 1853~1859년의 시기에 한국 최초로 ‘개화사상’을 형성한 것이다.

오경석이 그의 절친한 친구인 유홍기에게 신서들을 주어 연구를 권고한 결과 유홍기도 1860년~1866년경에 개화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경석은 1860년 10월 동지사 신석우 일행의 통역관으로서 제5차로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1861년 3월에 귀국하였다. 바로 중국에서는 그 직전인 이해 1860년 8월에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점령사건’이 일어나고 청국 황제가 熱河로 피란한 형편이었으므로, 오경석은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점령당한 직후의 북경의 참담한 실태에 대한 직접 관찰과 북경조약의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오경석은 이 때 북경을 향해 떠나기 직전이나 귀국 직후인 1860년~1866년에 그동안 그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온 신서들을 주면서 유흥기에게 나라를 구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권고했을 것임을 추정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경석이 그의 개화사상을 피력하고 신서의 연구를 권고한 친구는 비단 유흥기만은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인 古監 田琦, 大致 劉鴻基, 成安 金景遂, 小棠 金奭準, 夢人 丁學教, 桐齋 安복, 吉雲 卞元圭, 菊人 李容肅, 南舟 高穎聞, 簫山 金景林 등은 모두 오경석의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후에 개화사상을 갖고 개화파가 된 인물들이 많았다.¹²⁾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치 유흥기가 가장 가까워서 개화사상의 동지가 되었다.

대치 유흥기는 오경석과 동갑의 중인신분 출신이었다.¹³⁾ 그의 집안은 원래 譯官 집안이었으나, 유흥기는 역관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약을 업으로 하였다. 당시 한의약도 중인의 직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大致 선생은 원래 譯官의 집에 태어났으나, 醫를 業으로 하였고, 깊이 불교를 믿어 道는 높고 품성은 청백하였다. 학문으로서는 史學에 조예가 깊어 朝鮮古今의 역사에 통달하였다. 辯說은 유창하였고, 신체는 장대, 紅顏, 백발, 항상 생기에 넘쳐 있었다(《金玉均傳》상, 52쪽).

유흥기는 오세창의 회고담에서도 “이 大致라는 사람은 학식과 인격이 모두 고매 탁월하였고 또한 교양이 심원한 인물이었다”¹⁴⁾고 말한 바와 같이 학식·품성·변설·신체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다. 유흥기는 오경석이 아들 오세창을 위해 가숙을 차렸을 때 오경석의 요청에 응하여 塾師가 되어 주었을 만큼 두 사람은 절친한 관계였다.¹⁵⁾

이러한 유흥기가 오경석의 견문한 바와 그의 설명 및 그가 빌려준 《海國圖志》와 《瀛環志略》 등을 비롯한 신서들을 읽고 개화사상을 갖게 되어 오경석과 사상적 동지로 결합하게 된 것이었다.

12) 愼鏞廈,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참조.

13) 李光麟, 〈숨은 開化思想家 劉大致〉(《開化黨研究》, 一潮閣, 1973), 67~92쪽.

14) 《金玉均傳》상, 49쪽.

15) 〈吳一龍씨와 吳一六씨의 증언〉(1985년 4월 2일 및 4월 13일 녹취) 참조.

礪齋 朴珪壽는 조선후기 실학자 燕巖 朴趾源의 친손자로서 고위 양반신분 출신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 박지원의 실학적 학통을 이어받아 일찍이 개화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¹⁶⁾ 박규수가 개화사상을 형성하게 된 전기는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점령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조선 조정이 1861년 1월 위문사절단(慰問使)을 중국에 파견할 때에 副使로 임명되어 중국에 다녀오게 된 계기였다.

박규수는 위문사절단의 부사로 갈 때 5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의 수제자 雲養 金允植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¹⁷⁾

- ① 조선과 청국의 오랜 우호관계에 비추어 청국이 쇠할 때에도 환난을 함께 하는 위문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것.
- ② 조선과 중국은 이와 입술 관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청국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조선에도 lucky 아니므로 청국의 實情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것.
- ③ 중국이 洋夷의 침략으로 이제 이미 패전한 이상 그 침략이 장차 조선에 미칠 것이므로 그에 대한 備禦之道를 수립하기 위하여 서양 열강의 힘의 虛實에 대한 偵探을 위한 것.
- ④ 청국이 곤란과 危亂을 만났을 때 조선이 信義를 지켜 厚義를 보임으로써 후일 청국이 회복했을 때 조선에 후의를 보내게 하기 위한 것.
- ⑤ 청국이 서양의 침략 앞에서 망해가는 것을 앞서 임의 경계해야 할 사례로 삼아 조선의 상하 모든 관료들이 서로 경계하게 하기 위한 것.

또한 김윤식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사명을 누구보다도 적절하게 잘 수행했다고 기록하였다.

박규수가 개화사상을 형성한 것은 중국에 다녀오면서 직접 견문한 것과 중국에서 구입해온 《海國圖志》·《瀛環志略》·《中西見聞錄》 등을 비롯한 신서들을 읽고 난 직후라고 한다.

16) 金泳鎬, 〈實學과 開化思想의 關係問題〉(《韓國史研究》 8, 1972).

李完宰, 〈朴珪壽의 生涯와 思想〉(《史學論志》 3, 1975).

原田環, 〈朴珪壽의 政治思想〉(《朝鮮學報》 86, 1978).

——, 〈朴珪壽의 對日開國論〉(《人文學報》 46, 1979).

17) 金允植, 〈奉送礪齋朴先生珪壽赴熱河書〉(《雲養續集》 권 2), 3~12쪽을 요약한 것임.

다만 후학 소생인 오인의 견해에 의하면 職齋가 근대 명재상이오 선각자임에 틀림없지마는, 그가 宇內大勢에 通曉하게 된 경로로 말하면 일찍이 그가 奉命使臣으로 燕京에 내왕하면서 얻은 見聞과 또는 거기서 사 가져온 泰西譯書에 의뢰한 바 크다 할 것이니 이것만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書籍으로부터 新知識을 얻게 된 것은 어느 때인지를 추찰할 길이 없으나 그가 몸소 燕京에 가서 見聞에 의하여 얻은 對外知識은 적이 짐작 못할 바 아니다(文一平, 〈職齋朴珪壽〉, 《湖岩全集》 제3권, 1940, 82쪽).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규수가 중국 북경에 다녀 온 것은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점령 사건’ 직후인 1861년과 ‘신미양요’ 직후인 1871년의 두 차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박규수가 북경에서 몸소 견문하고 신서들을 구입해 와서 개화사상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1861년의 북경행 시기인가, 1871년의 북경행 시기인가의 두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1871년의 북경행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¹⁸⁾

그러나 1861년 박규수가 북경에 간 목적이 단순히 청국에 대한 위문에만 있지 않고 서양 열강의 침략 앞에 있는 청국의 실정을 ‘정탐’하고 ‘備禦之道’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더 큰 역점이 있었으므로, 이 때 신서들을 구입해 왔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박규수의 개화사상의 형성 시기는 1861년 북경행 직후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후 박규수가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한 직후 ‘제너럴셔먼호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규수는 대동강에 가라앉은 제너럴 셔먼호 선체와 엔진을 끌어올려 서울로 보내서 《해국도지》의 설명대로 증기선의 실험을 하도록 대원군에게 권고한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866년 이전에 《해국도지》를 읽었던 것이다.

또한 박규수는 오경석과도 1860년에 친교가 있었다. 박규수는 북경행(燕行)과 대대로 관련이 있는 北學派 실학자의 집안 출신이었으며, 오경석은 8대나 중국어 통역관을 지낸 중국통 역관 집안 출신이었다. 물론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양반신분제 사회에서 최고위 양반가문 출신 박규수와 중인 역관가문 출신의 오경석이 대등한 교제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당시 서울에서

18) 文一平, 〈職齋朴珪壽〉(《湖岩全集》 제3권, 1940), 82쪽.

몇 집안되지 않은 燕行通의 두 가문이 차별적 세교가 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박규수 가문과 오경석 가문이 세교가 있었다는 후손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박규수가 오경석에 보낸 편지가 1통 남아 있다.¹⁹⁾ 이 편지에서 박규수는 편지를 보낸 일자를 ‘六日’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오경석을 正三品堂下官 이하의 인물에게 사용하는 ‘惠人’이란 예의상의 호칭을 쓰면서 매우 친밀한 안부와 중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경석은 1869년 7월에 正三品堂上譯官이 되었으므로, 박규수가 오경석에게 보낸 이 편지는 1869년 7월 이전에 보내진 것이 분명하며, 1860년대에 박규수와 오경석이 친교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경석은 정례의 동지사의 역관으로 1860년 10월 서울을 출발하여 北京을 다녀 1861년 3월에 귀국하였고, 박규수는 그 보다 3개월 후인 1861년 1월 위문사의 부사로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을 다녀 6월에 귀국했으므로, 두 개화사상의 비조가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겹치는 3개월 동안에 북경에서 상봉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박규수가 일찍이 개화사상을 형성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조부인 연암 박지원의 실학에 있었다. 그 후의 자료이지만 신채호는 개화사상과 박지원의 실학사상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옥균이 일찍이 우의정 朴珪壽를 방문한 즉, 박씨가 그 벽장 속에서 地球儀 1座를 내어 김씨에게 보이니, 該儀는 곧 박씨의 조부 연암선생이 중국에 유람할 때에 사서 휴대하여 온 바더라(申采浩, 〈地動說의 效力〉,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下卷, 384쪽).

초기개화파의 하나인 박영효는 그후 개화사상의 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 新思想은 내 일가 朴珪壽 집 사랑에서 나왔소. 김옥균·홍영식·서광범 그리고 내 백형(박영교)하고 재동 朴珪壽 집 사랑에 모였지요(李光洙,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東光》2, 1931년 3월호).

19) 〈朴珪壽의 吳慶錫에게의 惠人 書簡〉(《吳一六씨 소장》) 참조.

‘燕巖集’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지요(李光洙,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東光》 2, 1931년 3월호).

여기서 명백한 것은 한국의 개화사상은 1853~59년에 오경석에 의하여 최초로 형성되었고, 뒤이어 유흥기와 박규수에 의하여 1860~1866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개화사상은 1853~1860년대에 오경석·유흥기·박규수 세 사람의 비조에 의하여 새로운 구국의 사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1866년 개화사상 비조들의 활동

1866년에는 7월에 ‘제너럴서면호사건’이 있었고, 9월에는 ‘丙寅洋擾’가 있었다. 개화사상의 비조인 박규수와 오경석은 각각 이 두개의 큰 사건에 대응하여 큰 활동을 하였다.

박규수는 1866년 음력 2월 4일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되어,²⁰⁾ 3월 22일 서울을 출발해서 부임하여,²¹⁾ 7월 23일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상선 ‘제너럴서면호’를 평양의 관민과 함께 火攻으로 격침시켰다.²²⁾ 제너럴서면호를 격침시킨 장본인 책임자는 바로 개화파의 비조의 하나인 박규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규수는 불법 침투한 제너럴서면호를 대동강에 격침시킨 후에, 그 기계들을 물 속에서 건져 올려 서울로 보내어서 서양증기선의 실험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박규수는 제너럴 서면호의 기계·철물 등은 물론이요, 증기선장치와 무기들을 낚낚이 수색하여 건져 올려서 평양감영의 무기고에 넣었는데, 그 건져올린 무기고에 넣은 내역이 대포 2문, 소포 2문, 대포탄환 3개, 鐵碇 2개, 대소 鐵連環줄 162把, 서양철 1,300근, 長鐵 1,250근, 잡철 2,145근에 달하였다.²³⁾ 이것이 서양식 증기선 제조의 실험을

20) 《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2월 14일.

《承政院日記》, 고종 3년 2월 4일.

21) 《日省錄》, 고종 3년 3월 22일.

《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3월 22일.

22) 《承政院日記》, 고종 3년 7월 22일.

《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7월 22·27일, 〈平安監司朴珪壽狀啓〉 참조.

위하여 서울의 한강에 보내진 것이었다.

박제경의 《近世朝鮮政鑑》에는, 이 때 제너럴셔먼호의 잔해 부품을 대동강에서 건져내어 서울 한강으로 보내고, 대원군은 이것을 받아서 金箕斗라는 기술자를 시켜 《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서양 증기선의 원리를 본떠서 철선을 제조하고 목탄으로 증기기관을 작동시켜 기계바퀴를 돌리는 軍船을 새로이 제조 실험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²⁴⁾ 《高宗實錄》에 이 무렵(1866~67) 戰船을 새로 제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이러한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해국도지》의 〈倣造戰船議〉에는 서양식 전선의 제조의 필요와 방법이 논의되어 있고, 〈火輪船圖說〉에는 왓트(James Watt)의 증기기관의 圖解와 증기선의 제조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²⁶⁾

박규수가 제너럴셔먼호의 증기기관과 기계들을 서울로 보내 서양식 軍船 제조를 제안하고, 대원군이 김기두를 시켜서 《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증기선 제조를 실험했다는 사실은, 박규수가 적어도 이때 이전에 개화사상을 형성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해국도지》가 일찍이 조선에 구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1866년에는 이미 응용까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 후인 9월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衛正斥邪論이 비등하자 이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윤식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를 비판하였다.

23) 《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8월 8일.

24) 朴齊綱, 《近世朝鮮政鑑》, 26~27쪽 참조.

25) 《高宗實錄》 권 4, 고종 4년 10월 25일.

26) 《海國圖志》(1847년간, 60권 24책본) 제21책 권53의 〈請造戰船疏〉(1~4쪽), 〈覆奏倣造夷式兵船疏〉(5~8쪽), 〈造砲工價難符例例疏〉(9~11쪽), 〈水勇小舟攻擊情形疏〉(12~13쪽), 〈製造出洋戰船疏〉(14~19쪽)와 〈戰船解說〉(20~26쪽), 〈安南戰船說〉(27~29쪽)이 수록되어 있고, 제22책 권54에는 〈火輪船圖說〉(1~9쪽), 卷55에는 〈鑄砲鐵模圖說〉(10~14쪽), 〈鑄造洋砲圖說〉(15~26쪽), 〈樞機砲架新式圖說〉(27~31쪽), 〈大砲順用滑車紋架圖說〉(32~34쪽), 〈舉重大滑車紋架圖說〉(35~37쪽), 〈旋轉活動砲架圖說〉(38~45쪽)이 수록되어 있다. 火輪船의 圖解는 모두 6장이 수록되어 있다.

옛날에 朴瓚齋(珪壽)께서 丙寅洋擾의 때를 당하여 사람들이 모두 西學의 물 들음을 우려하였는데, 환재만이 홀로 말하기를 ‘어찌 우리 道가 서양에 적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거의 장차 증명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金允植, 《續陰晴史》 하, 韓國史料叢書 11-2, 國史編纂委員會, 1960, 고종 27년(1890) 7월 15일, 125쪽).

또한 김윤식은 스승 박규수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옛날에 瓚齋(朴珪壽) 相公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되 西法이 東으로 오면 夷狄과 금수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東敎가 서양에 들어갈 조짐이 있어 이적과 금수가 장차 모두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金允植, 《續陰晴史》 하, 고종 28년(1891) 2월 17일, 157쪽).

이것은 1866년 ‘병인양요’를 맞아 전국에 위정척사론이 재대두하여 지배했을 때 박규수가 보인 반응이었다. 1866년 9월에 프랑스 동양함대가 침략하여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華西 李恒老(1792~1868)는 ‘위정척사’론을 주창하고 대원군에 의해 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또한 蘆沙 奇正鎭(1798~1876)은 副護軍에 임명되어 ‘위정척사론’을 주창했고, 그 밖에 전국의 유명한 유학자·유생들이 한결같이 ‘위정척사’를 주창하였다. 그들은 왜와 서양은 ‘夷狄’이요, 특히 서양은 삼강오륜의 윤리와 주자학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금수’라고 규정하면서, 만일 조선이 저들 왜 또는 서양과 통상하여 和交하면 조선은 ‘이적’과 ‘금수’의 나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 위정척사론과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또는 서양과의 모든 통상과 교섭을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1866년의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박규수가 위정척사론을 비판하고(개국통상을 하면) 동양의 道가 서양에 들어가 그들을 교화시킬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이 시기에 위정척사론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초기의 개화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규수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현직의 고위 관료로서 ‘위정척사론’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그가 ‘위정척사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상을 피력한 것은 그가 1861년 중국

을 다녀온 이후 스스로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갖고 있었으며, 1866년 ‘제너럴 서면호사건’과 ‘병인양요’는 개화사상을 가진 상태에서 직면하여 처리하고 반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규수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사상을 형성한 단계에서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關西海防策을 대원군에게 제안하여 서해안의 요지에 방어진지를 다수 구축하게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다.

한편 오경석도 1866년 ‘병인양요’에 직면하여 큰 활동을 하였다. 오경석은 1866년 5월 대원군에 의해 조선정부가 중국에 파견한 奏請使 일행의 통역관으로 또 북경에 가게 되었다. 당시 대원군은 이 해 정월 초부터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여 조선인 교도는 물론이고 국내에 잠입한 프랑스인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체포를 면하여 탈출한 프랑스인 신부가 天津에 있는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Pierre Gustave Roze)에게 구원과 보복을 요청하자, 주중국 프랑스공사와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은 이 기회에 조선을 침공하여 대원군 정부를 응징하고 가능하면 조선왕국을 프랑스에 예속시킬 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조선정부는 프랑스의 조선침공 준비의 소식이 들어오자 청국에 사태를 해명하고 정세를 탐지하기 위하여 正使에 柳厚祚, 부사에 徐堂輔, 서장관에 洪淳學을 임명하여 소위 ‘奏請使’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파견하면서,²⁷⁾ 오경석을 賁咨官 겸 통역관으로 북경에 파견하게 된 것이었다.²⁸⁾

사절단 일행이 북경에 도착한 후 정사·부사·서장관 등은 말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고관들과의 친교가 없어 거의 외교활동을 못하고 있는 중에, 오직 오경석만은 그 동안 자기가 닦아 놓은 중국인들과의 친교와 외교적 기반에 의거하여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많은 정보와 정책자료를 수집하였다. 오경석은 특히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정책 수립의 경험을 가진 중국의 정책가 12명과 만나 프랑스 동양함대의 동태와 그들의 조선침략의 경우의 대책수립을 위한 조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대원군에게 보

27) 《日省錄》, 고종 3년(1866) 4월 9일.

《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4월 9일.

28) 《吳慶錫·吳世昌年譜》(吳世昌作), 丙寅條 참조.

내었다.²⁹⁾ 오경석이 이때 직접 만나 듣고 수집해서 본국에 보낸 중국 정책가들의 조언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張丙炎(翰林院 編修)

서양의 종교 시행 운운하는 것은 첩자와 결탁해서 타국의 정상을 탐지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첩[奸細]의 인도가 없으면 감히 他國의 境地에 침입하지 못한다. 그들의 성격은 피하면 사납게 공격하여 들어오고 대기하면 도리어 달아난다. 그러므로 禦洋策은 자기의 國境을 고수하고 간첩을 엄금하며 그들과 더불어 相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하면 마침내 스스로 물러가게 된다(吳慶錫, 《洋擾記錄》, 1~2쪽).

王軒(兵部 郎中)

먼저 자기 나라의 奸細를 금하여 저들이 우리의 虛實을 偵探할 수 없도록 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미 간세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들의 大船舶은 수심이 낮은 물가에 정박하지 못하므로 다른 길을 금하고 地形을 이용하여 衆智를 모아 도모하는 것이 좋다(吳慶錫, 《洋擾記錄》, 2쪽).

吳懋林(軍功으로 候選)

서양인의 욕심은 土地에 있지 않고 세계를 모두 상업에 따르게 만들어 그 중에서 利를 취하려는 계책이다. …

저들은 陸戰은 長技가 아니다. 그러나 가버이 나아가서 接戰하는 것은 불가하다. 저들의 해상의 大砲는 船竹의 사이에 걸쳐 있으므로 사격술이 정교하지 않으면 명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水戰도 불가하며, 大船舶이 아니면 砲를 거는 것도 불가능하다. 저들은 高處의 城郭을 격파하고 싶으면 砲를 걸어 발포한다. 그러나 귀국은 들으니 山城이라 하는데, 산성은 그것으로 격파할 수 없는 것이다(吳慶錫, 《洋擾記錄》, 2~3쪽).

劉培榮(軍功으로 당시 福建省 通判에 임명)

6월 초8일 登州에서 배를 탈 때 西洋의 兵船 10수 척이 있으므로 서양 배에 있는 廣東人을 불러 물은 즉 바야흐로 高麗에 향하기 위하여 構兵(군대출동의 편대 구성)한다고 운운하였다. 兵의 多少를 물은 즉 한 배에 5백~6백 명이라 하였다. 軍糧의 다소를 물은 즉 1개월 여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하였다. 發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왔다. 대개 서양의 장기는 火輪船인데 하루에 1,400~

29) 吳慶錫, 《洋擾記錄》, 39~44쪽 참조.

1,500리를 간다. 兵船은 작고 煙筒은 짧으므로 바라보면 알 수 있으며, 水深이 1丈이면 뜨고 9丈이면 간다. 이보다 얕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귀국의 해변은 石角(암초)이 잠기어 있으므로 서양인이 이를 두려워한다. 만일 저들이 귀국의 지방민의 향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안이 꾸불꾸불 굴곡이 심하면 火輪船은 쓸모가 없고 반드시 小船으로 나아갈 것인즉 귀국 역시 兵船으로 대응하여 막아낼 수 있다. 이 때 서양의 砲火藥은 심히 맹렬하므로 砲丸을 속히 발사해야 하며 追戰(近接戰)은 불가하다. 귀국의 산천은 險陋하므로 火輪車는 달리지 못한다. 저들이 비록 배에 싣고 온 馬가 있을 것이나 많지 않아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地形의 險陋에 의거하여 방어하고, 방어하기를 오래하면 저들의 軍糧이 부족하여 반드시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撤去할 것이다.

저들의 砲에는 飛天火砲가 있는데 砲丸의 크기는 쟁반만 하며, 그 안에 小丸 천백 개가 들어 있어서, 발사되어 陣中에 들어와 땅에 떨어진 연후에 大丸이 갈라지면서 小丸이 사방에 發散하여 사람을 부상시키니, 이는 두려워 할 만한 것이다. 발포를 지켜 보다가 미리 피하면 면할 수 있다. …

귀국은 오랫동안 兵을 사용하지 않아서 병에 익숙치 않으므로 오직 지키기만 하고 전쟁하지 말 것이며, 必勝이 내다 보이는 연후에만 싸워야 할 것이다. 신중해야 하며 가벼이 나아가서는 안된다.

저들은 타인의 약한 곳을 보면 반드시 진격하고, 타인의 강한 곳을 보면 반드시 후퇴한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곳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대저 군량을 빌리고 군병을 빌린 무리가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명약관화함은 비단 이번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수년전에 富商으로부터 8百萬金을 빌리어 이자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출병했으므로 시기가 서양인들에게 불리하다. 이번에 10수 척의 배로 東國에 향하면서 이 때문에 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吳慶錫, 《洋擾記錄》, 4~7쪽).

오경석은 그의 오랜 친구들을 통하여 다수의 대책 자문과 권고를 받고 큰 도움을 얻었다. 특히 劉培棻의 권고를 오경석은 매우 중시하여 보고하였다.

당시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와 주북경 프랑스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t)는 조선을 침공하기에 앞서 청국정부에게 대원군의 조선 조정을 격렬하게 규탄하면서, 조선왕국에서의 천주교 포교의 승인을 요청하고 조선침공을 청국에 알림과 동시에 마치 청국의 公文에 의한 동의를 얻고 조선에 출병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조선 침공 병력에는 淸國의 雲南省軍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선에 대하여 참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이었다.

오경석은 그 진위를 알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청국의 禮部尙書를 오경석과 이미 1850년대부터 친교가 있는 萬靑藜가 맡고 있었다.³⁰⁾ 오경석은 만청려로부터 유배분을 경유하여 그러한 일이 없다는 회답과 자문을 들었으며, 또 만청려를 직접 면담하여 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오경석이 두 차례에 걸쳐 본국에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경석이 劉培蓁을 통하여 얻은 萬靑藜의 회답.

萬尙書의 말에 중국의 雲南兵이 프랑스 해군과 함께 移去한다는 설에 대하여 물으니 가로되, 이것은 서양인의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겁내서 聲勢를 과장하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종교의 시행을 청한 公文의 의미를 물은즉 가로되, 다른 나라의 출병은 처음부터 중국에 관계가 없는데 어찌 공문을 청하는 이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 또한 서양의 풍속은 병을 일으킬 때에 자기 나라 군주에게 書奏하여 일이 성공하면 爵號의 상을 받고 성공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고로, 이제 명분이 없는 병을 일으키고자 함에 자기 군주에게 고하고자 하므로 中國公文으로서 구실의 핵심을 의탁하여 만들려는 것일 뿐이다. 중국은 절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행동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

저들이 10수 척의 배로 갔다면 해상의 漁船과 商船을 몰아 그 위세를 돕도록 했을 것이며, 實兵船은 12척 뿐이다. …

이번에 간 서양인이 프랑스인인가 영국인인가 물으니, 가로되 프랑스인이고 영국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로 借兵을 하므로 영국인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저들은 군량이 적은 것을 매양 근심하고 있으므로 戰과 和간에 速成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양을 제압하는 術은 遲(끌고)하고 緩(천천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吳慶錫, 《洋擾記錄》, 7~10쪽).

② 오경석이 직접 만청려를 면담하여 얻은 회답.

서양인의 소위 公帖은 그들이 스스로 主管하여 한(꾸민)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중국이 아는 바가 아니다. …

서양인은 전적으로 財利를 가장 숭상한다. 영국 오랑캐는 통상을 주로 하고 法國(프랑스) 오랑캐는 行教(종교 포교)를 주로 한다. 法國人은 집요하고 사나우며 무릇 거사하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다.

30) <萬靑藜의 亦梅 吳慶錫에게의 書簡>《燕京書簡帖》참조. 이 書簡帖에는 1850년대에 만청려가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 3통이 수록되어 있다.

아라사(러시아)는 더욱 不可測이며, 貪狼하기 한량없고, 또 바라는 바는 ‘土地’이다(吳慶錫, 《洋擾記錄》, 10쪽).

오경석의 이 보고를 받고 대원군이 얼마나 안도하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인가는 미루어 알고도 남음이 있다.

오경석은 위와 같은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본국(대원군)에 보내면서 자기의 견해를 넣어 다음과 같이 또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여 보고하였다.³¹⁾

- ① 부득이하여 通商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물품과 저들의 金銀을 무역해야지, 우리의 금·은과 저들의 물품을 무역하지 말아야 함은 중국의 경제가 고갈된 것으로 족히 명증될 수 있다.
- ② 프랑스의 침공을 제압하는 데는 피하면 사납게 들어오고 대기하면 스스로 물러간다고 한다.
- ③ 저들의 行數는 비단 행교만이 아니라 타국의 사람 마음을 얻어서 內應潛通 세력을 만들려는 계책이 포함되어 있다.
- ④ 프랑스가 중국의 공문을 요청한 것은 조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자기나라 군주에게 보일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프랑스의 조선침공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
- ⑤ 프랑스 동양함대는 재정이 부족하여 상인으로부터 百萬金을 빌어서 보급을 댄 형편이므로 군량이 부족하고 大發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⑥ 프랑스군이 침공하면 지형을 이용하여 굳게 지키고 가능한 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오래 끌면 마땅히 물러갈 것이라고 한다.
- ⑦ 프랑스군은 군량이 부족하므로 전쟁을 하든 화평하든 간에 매우 급히 결판 내기를 바라므로, 우리의 전술의 요체는 자신을 갖고 천천히 대기하면 저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오경석의 이러한 활약과 보고가 당시 조선이 프랑스 침략을 물리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시 북경에서는 조선 사절단의 정사, 부사, 서장관 등 다수의 고위 양반관료들이 함께 체류했지만, 그들은 신분과 직위만 높았지 이러한 외교활동을 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오경석이 그 동안 북경에 왕래하면서 쌓은 친교 기반과 그의 개화사상에 기초하여 활발한 외교활동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수집활동을 하여 크게

31) 吳慶錫, 《洋擾記錄》, 45~46쪽 참조.

성공한 것이었다.

오경석은 프랑스 동양함대의 침공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 수집 이외에도 청국 總理衙門과 프랑스공사관 사이의 왕복 외교문서들을 중국인 친우들을 통해 필사해 내어 본국에 보고하였다.³²⁾

이상과 같이 개화사상의 비조인 박규수와 오경석의 1866년의 활동을 보면, 그들은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갖고 궁극적으로 개항과 개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준비를 잘 갖춘 후의 나라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개항·개국이었고 무력 위협과 무력 침공에 굴복한 개항·개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침략적 위협과 무력침공에 의한 개국에는 그들 자신이 앞장서서 반대하여 외국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정력적 활동을 전개했음을 박규수와 오경석의 1866년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경석은 ‘병인양요’ 이후에는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보아 자주적 개국을 실현하고 자주적 개화정책을 실시해서 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였다. 오경석은 주체성이 강한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개항·개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871년 미국이 ‘대통령국서’를 갖추고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개항을 요청해 오자 오경석은 개항을 더 미루어도 더 이상 좋은 기회는 없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대담하게 대원군에게 미국과 외교를 열도록 주장하고 개항을 건의하였다. 오경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辛未年(1871) 아메리카船이 왔을 때 대원군은 거의 全權이 최고에 있었다. 그때 나는 대원군에게 도저히 외교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소의를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미국배는 약간의 포사격을 받고 퇴각당하였다. 그 이래 나를 지목하기를 開港家라고 하여 어떠한 일을 건의해도 다시는 채취되는 일이 없었다(《日本外交文書》권 9, 文書番號 6, 1876年 1월 30일, 〈黑田辦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3쪽).

오경석은 그러나 미국 군함이 함포사격을 하여 무력행사를 하는 데에는 단호하게 반대하여 대항을 주장했으며, ‘신미양요’의 뒷처리와 관련하여 1872

32) 吳慶錫, 《洋擾記錄》, 20~26쪽.

년 박규수를 정사로 한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할 때에는 오경석은 수석통역관으로 지명되어 다시 북경에 가서 ‘신미양요’와 관련된 뒷처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4) 최초의 개화사상

그러면 오경석·유흥기·박규수 등 개화사상의 비조들이 당시에 형성했던 최초의 개화사상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개화사상의 3비조가 모두 충분한 개화사상 관련 문헌을 남기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흥기는 그후 개화활동은 많이 했지만 글을 남긴 것이 없고, 박규수는 글을 많이 남겼으나 개화에 관련된 글이 아니라 대부분 그 이전의 국정에 관련된 글 뿐이다. 비교적 개화 관련 글을 많이 남긴 오경석의 경우도 단편적인 글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전제로 하고 오경석의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최초 형성기의 3비조의 개화사상 내용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왕국과 조선민족이 심각한 大危機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위기는 일차적으로 서양 열강의 동양 침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중국은 서양 열강의 침입을 받고 그들의 角逐場이 되어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그칠 일이 아니고 입술과 이의 관계에 있는 조선에도 곧 불어닥칠 위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매우 큰 민족적 위기로 생각하여,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비극이 일어날 것’³³⁾이며, ‘자기 나라의 형세가 風前の燈火처럼 위태하다’³⁴⁾고 생각하였다.

둘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이러한 민족적 대위기 속에서 조선의 정치는 부패해 있고, 조선의 사회와 경제는 세계대세에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自國정치의 부패와 세계대세에 失脚되고 있음’³⁵⁾을 깨

33) 《金玉均傳》上卷, 49쪽.

34) 위와 같음.

35) 위와 같음.

달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부패하고 세계대세에서 매우 뒤떨어진 당시의 조선왕조의 정치와 사회체제로서는 이러한 민족적 대위기를 타개하여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였다.

셋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이러한 민족적 대위기를 타개하려면 나라의 ‘一大革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³⁶⁾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한 ‘일대혁신’은 조선왕조의 부분적인 소개혁이 아니라 국가정법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가리킨 것이었으며, 사회체제 전반의 大更張改革을 의미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개화사상은 조선의 민족적 위기를 중국에 의뢰하여 타개하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또는 조선왕조의 전근대적 기층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위정척사사상과는 정면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상이었다.³⁷⁾

넷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나라를 구하는 ‘일대개혁’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단행되어야 하고,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붕괴되어 가는 중국에 조금이라도 의뢰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며, 조선이 완전히 자주적으로 조선사람의 힘에 의하여 부강한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 조정의 대관들이 중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을 개탄했다. 서양 열강이 중국을 다투어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생생하게 견문하고 읽은 그들은 외국에 조금이라도 의존하는 것은 침략의 뜻을 가진 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의존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 자주독립하여 자기의 힘으로 대혁신을 단행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나라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혁신적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가리킨 이 혁신적 정치세력은 곧 開化派 또는 開化黨의 형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패하지 않고 세계대세의 변화를 잘 알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개화혁신세력’이 형성되어 정권을 주도하면서 온 나라에 혁신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³⁸⁾

36) 위와 같음.

37) 金允植, 《續陰晴史》 하, 고종 28년(1891) 2월 17일, 157쪽 참조.

38) 《金玉均傳》 상, 49쪽.

여섯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도 세계대세에 보조를 같이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나라가 ‘세계대세에 失脚되고 있다’고 개탄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기술문명과 자본주의세계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으며, 조선이 세계대세에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조선도 근대국가와 과학기술문명과 자본주의 시민사회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도 서양과 같이 철과 석탄을 이용하는 공장제도의 기계이용 생산방식을 도입해서 공업과 산업을 일으켜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오경석은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오경석은 강화도조약 때 문정관으로 일본 군함에 승선하여 일본 외교관들에게 “우리 나라도 철과 석탄의 채굴법을 알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게 된다”³⁹⁾고 말하였다. 그들은 서양 열강이 철과 석탄을 사용하면서 산업혁명을 수행하여 증기기관과 공장제도로 생산하기 때문에 부강해졌음을 알고 있었으며, 조선도 철과 석탄을 채굴하고 서양과 같이 그에 기초하여 기계로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공업과 산업을 일으키면 반드시 부강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여덟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서양의 과학기술의 선진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조선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채용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감탄하여 예민하게 이에 반응하였다. 오경석이 북경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양의 과학기술서인 《揚水機製造法》이라는 책을 필사해 온 것이든지, 철과 석탄의 이용을 강조한 것은 그가 얼마나 서양의 과학기술의 도입과 채용에 열의를 가졌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⁴⁰⁾ 또한 그 후 일본 외교관과의 담화 중에 일본의 電信 상태를 물어보고 전신기가 전국을 중형하는 망을 이루었다는 대답을 듣자,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살만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⁴¹⁾고 그의 과학기

39) 《日本外交文書》第9卷, 文書番號 6, 1876년 1월 30일, 〈黑田辦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8쪽.

40) 吳慶錫이 鐵과 石炭을 이용하고 火輪船・蒸氣船을 구비할 것을 말한 것은 모두 서양의 先進科學技術을 배우고 채용해야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다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술에 대한 일찍부터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또한 박규수가 1866년 제너럴셔먼호를 격침시킨 후 그 증기기관과 기계들을 서울 한강으로 보내어 증기선 제조실험을 하도록 한 것도 그의 서양 과학기술 채용에 관한 열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²⁾

아홉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의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나라안의 각계각층의 능력있는 인재를 모두 관직에 채용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오경석과 유홍기는 중인출신으로서 무능한 양반들에게 신분차별을 받으며 생활해 오는 동안 양반신분제도의 폐해와 불합리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감한 선각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양반신분제도의 폐지가 쉬운 일이 아니며 당장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시급하게 개화혁신세력을 형성하여 개화정책을 실행하려면 서울 북촌의 양반 자제들을 발탁하여 개화사상을 교육하는 것이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폐해 많고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될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상을 확고히 가졌음은 그들의 모든 행적에 명료하게 들어나는 것이다.

또한 박규수는 중인출신이 아니고 고위 양반신분 출신이었지만, 그의 조부 연암 박지원의 실학을 계승하여 양반신분제도를 비판하고 평등사상을 주창하고 또 교육하였다.⁴³⁾

열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도 군함을 구비하고 국방을 근대적으로 혁신하여 튼튼히 해서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방위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사건’ 때 조선도 증기기관을 설치한 군함을 제조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증기병선 실험을 제의했으며, 關西海防策을 건의하였다.⁴⁴⁾ 오경석은 ‘병인양요’ 때 중국에서 외교활동을 하면서 프랑스 동양함대의 무력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본국에 보고했으며,⁴⁵⁾ 그

41) 《日本外交文書》第9卷, 文書番號 6, 1876년 1월 30일, 〈黑田辦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7쪽.

42) 朴齊炯, 《近世朝鮮政鑑》, 26~27쪽 참조.

43) 李光洙, 〈朴泳孝씨를 만난 이야기〉 《東光》 1931년 3월호 참조.

44) 原田環, 〈朴珪壽と洋擾〉(《旗田教授古稀紀念朝鮮史論集》, 1979) 참조.

45) 吳慶錫, 《洋擾記錄》, 4~10쪽 참조.

후 강화도조약 직전에 일본 군함에 승선하여 일본 외교관들에게 “우리 나라가 火輪船을 구비하게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언제 이것을 보는 날이 될까”⁴⁶⁾하고 군함의 구비를 회구하였다. 여기서의 화륜선은 군함을 가리켰던 것으로서 오경석은 군함을 구비한 근대적 국방체제를 만들어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고자 한 열망을 나타낸 것이었다.⁴⁷⁾

열한번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조선이 종래의 쇄국정책을 버리고 자주적 개국·개항을 단행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원군과 위정척사파의 쇄국정책으로는 궁극적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조선도 자주적으로 개국하여 세계각국과 통상도 하고 문물도 교환하면서 서양의 선진문물은 필요한 것을 채용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박규수는 조선이 개항하여 서양과 통상하면 서양 문물이 들어와 조선을 금수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서양과 교류하면 동양의 종교와 문화를 서양에 내보내어 그들을 교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개화사상의 3비조는 외국의 위협과 침략에 의한 개항·개국은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박규수는 1866년 7월 미국상선 제너럴서먼호를 대동강에 격침시켰었다. 또한 오경석도 이 때문에 ‘병인양요’ 때에는 프랑스 동양함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헌신적 외교활동을 전개했었다.⁴⁸⁾ 오경석은 그후 1871년에 미국 군함이 ‘대통령국서’를 갖고 수교를 요청했을 때 대원군에게 이 기회에 ‘개항’을 하자고 건의했으며, ‘개항가’로 지목받았다.⁴⁹⁾ 그러나 미국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무력행사를 자행하여 ‘신미양요’를 일으키자 이에 단호히 대결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46) 《日本外交文書》第9卷, 文書番號 6, 1876년 1월 30일, 〈黑田辦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7쪽.

47) 吳慶錫의 軍艦을 구비한 근대적 국방에 대한 열망은 그가 편집한 《洋擾記錄》전책에 충만하여 있다.

48) 吳慶錫, 《洋擾記錄》, 38~44쪽 참조.

49) 《日本外交文書》第9卷, 文書番號 6, 1876년 1월 30일條 〈黑田辦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3쪽.

개화사상의 3비조가 생각한 개항·개국은 조선이 준비와 실력을 갖추고 조선의 필요에 의해 단행하는 ‘자주적’ 개항·개국이었다.⁵⁰⁾

열두번째, 개화사상의 3비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하되 조선이 손실을 입지 않는 통상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오경석은 중국이 외국과의 통상을 잘 못하여 나라 경제가 빈약해지는 것을 견문하고, 조선은 물품과 물품의 균형 무역을 해야 하며, 조선의 金銀과 외국의 물품을 교역하여 조선의 금은을 외국에 누출시키거나 조선이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여 무역적자의 손실을 입어서 그 댓가로 금은을 외국에 내보내서는 나라 경제가 메마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⁵¹⁾ 개화사상의 비조들은 대외통상이 반드시 조선을 부강케 하는 방법으로서만 실행되어야 그 통상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자료가 부족하여 개화사상의 3비조의 형성기 개화사상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19세기 중엽 조성된 민족적 위기와 체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사상으로서의 개화사상은 같은 시기 동학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화사상의 3비조의 형성기 개화사상은 아직 초기의 첫 개화사상이어서 1880년대의 개화사상과 같이 발전된 것은 아니었고,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미 상식화된 것일지 모르지만, 당시 전근대적 구체제를 강화하여 과제에 대응하려던 완고한 위정척사사상이 국론으로서 전국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1860년대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개화사상은 참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사상이었다.

1866년 9월 ‘병인양요’의 큰 충격을 받은 직후 오경석과 유홍기는 개화혁신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 북촌의 영민한 양반 자제들을 선발하여 개화사상을 교육해서 혁신의 기운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화사상의 3비조 중에서 오경석·유홍기의 노력만으로는 북촌의 영민한 양

50) 吳慶錫은 朴齊家の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開國論者가 되었으나 그의 개국은 조선이 자주적 주도권을 갖고 조선의 이익과 부강을 위한 방법으로서 실행하는 자주적 개국을 가리킨 것이었다.

51) 吳慶錫, 《洋擾記錄》, 45쪽.

반 자제들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중인신분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위 양반출신의 영민한 자제들을 불러모아 교육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경석·유흥기에게는 박규수의 도움과 역할이 절실한 것이었으나, 1866년 당시 박규수는 평안도관찰사로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합류할 수 없었다.

박규수가 藝文閣提學의 새 직책을 발령받은 것은 3년 후인 1869년 4월 3일(양력 5월 14일)이었다.⁵²⁾ 박규수는 상경하자 바로 4월 23일(양력 6월 3일)자로 漢城判尹에 임명되었고,⁵³⁾ 뒤이어 6월 15일(양력 7월 22일)자로 刑曹判書에 겸무로 임명되었다.⁵⁴⁾ 박규수의 집은 바로 서울 북촌의 재동에 있었다.⁵⁵⁾ 한편 오경석은 조선정부가 파견하는 사절단(정사 李承輔)의 통역관으로 1869년 8월에 북경으로 출발하여 12월에 귀국하였다.⁵⁶⁾ 그러므로 박규수가 평안도관찰사의 임무를 끝내고 상경한 후 오경석·유흥기 등과 합류한 것은 1869년 4~8월 사이와 12월의 두 기간이 있었다.

오경석·유흥기·박규수 등 개화사상의 3비조는 결국 서울에서 1869년에 완전히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박규수는 오경석·유흥기가 이미 합의한 방책대로 북촌의 양반자제들 중에서 가장 영민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1869년 후반~1870년 초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金允植·朴泳教·金玉均·洪英植·朴泳孝·徐光範·俞吉潐·金弘集 등이 그 대표적인 청년들이었다.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에 古愚(김옥균)는 職齋(박규수)선생 문하에서 배워 宇內的 대세를 대

52) 《日省錄》, 고종 6년 4월 초3일.

《高宗實錄》 권 6, 고종 6년 4월 초3일.

53) 《承政院日記》, 고종 6년 4월 23일.

《高宗實錄》 권 6, 고종 6년 4월 23일.

54) 《日省錄》, 고종 6년 6월 15일.

《高宗實錄》, 고종 6년 6월 15일.

55) 《高宗實錄》 권11, 고종 11년 3월 초5일.

文一平, 〈名相朴珪壽의 옛터〉(《湖岩全集》 제3권), 266~268쪽 참조.

56) 《高宗實錄》 권 6, 고종 6년 7월 29일.

개 깨닫고 동지들과 더불어 國事를 근심하고 개탄했다(金允植, 《續陰晴史》 下卷, 577쪽).

박영효는 개화사상이라는 신사상을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친우들과 함께 배웠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 新思想은 내 일가 朴珪壽 집 사랑에서 나왔소. 金玉均 · 洪英植 · 徐光範 그리고 내 백형(朴泳孝를 가리킴)하고 齋洞 박규수 집 사랑에 모였지요(李光洙,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東光》 2, 1931년 3월호).

그리하여 1853~1860년대에 오경석 · 유홍기 · 박규수의 3비조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의 개화사상은 마침내 1869년 후반~1870년 초부터 영민한 양반사제들을 선발하여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제2세대에 대한 개화사상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구할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⁵⁷⁾

〈愼鏞廈〉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

1) 동학 창도의 배경

동학 창도의 배경은 큰 구조에 있어서 개화사상 형성의 배경과 같고 작은 인식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동학도 19세기 중엽에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국 사상의 하나로 창도된 것이었다.¹⁾

57)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 제46·47·48집, 1985;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1987) 참조.

1) 동학사상에 대한 대표적 글들은 다음과 같다.

金龍德, 〈東學思想研究〉(《中央大論文集》 9, 1964).

金義煥, 〈初期東學思想에 관한 研究〉(《우리나라 近代史論考》, 1964).

韓祐勸, 〈東學사상의 本質〉(《東方學志》 10, 1969).

崔東熙, 〈東學사상의 調查研究〉(《亞細亞研究》 12-3, 1969).

1860년 水雲 崔濟愚(1824~1864)에 의하여 동학이 창도된 배경으로서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서양세력과 西學의 조선 침투로 말미암아 조성된 민족적 위기의 상황이다.

19세기에 들어오자 ‘異樣船’이라고 불리운 서양의 증기선들이 조선 연안에 해마다 출몰하여 서양 열강의 조선침입이 임박하고 있음을 보인 환경 속에서 서학의 조선에서의 포교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31년에는 천주교의 조선교구가 독립되어 제1대 교구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조선에 오지 못하고 죽었지만, 제2대 교구장 앙베르(Mgr. Imbert)는 1838년 1월 극비리에 서울에 잠입하여 본격적으로 조직적 포교를 감행하였다. 이에 조선에서의 천주교의 세력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1839년 초에는 천주교도의 숫자가 이미 약 9천 명에 달하게 되었다.

조선조정은 서학(천주교)의 침투와 그 급속한 세력증가에 위협을 느껴, ‘衛正斥邪’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1839년 다시 천주교 탄압을 재개해서 서양인 신부 3명과 다수의 천주교도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이른바 ‘己亥邪獄’이 이것이다. 조선왕조 정부는 그 이후에도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다가, 1846년에는 다시 천주교 탄압을 강화하여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金大建과 8명의 남녀 교도가 처형되었다.

그러나 양반관료들의 학정과 차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申一澈, 〈崔水雲의 歷史意識〉(《韓國思想》 12, 1974).

金敬宰, 〈崔水雲의 神개념〉(《韓國思想》 12, 1974).

趙鏞一, 〈近菴에서 찾아본 水雲의 思想的 系譜〉(《韓國思想》 12, 1974).

李炫熙, 〈東學思想의 배경과 그 意識의 성장〉(《韓國思想》 18, 1981).

朴容玉, 〈東學의 男女平等思想〉(《歷史學報》 91, 1981).

鄭鎮午, 〈東學의 政治思想〉(《濟州大論文集》 20, 1985).

表嘆三, 〈水雲大禪師의 生涯〉(《韓國思想》 20, 1985).

愼鏞廈, 〈東學의 社會思想〉(《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1987).

朴明圭, 〈東學思想의 종교적 전승과 사회운동〉(《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韓國社會史學會論文集 7, 1987).

申福龍, 〈東學의 集團化過程과 甲午農民革命의 思想的 展開〉(《朝鮮朝 政治思想研究》, 평민사, 1987).

趙惠仁, 〈東學과 朱子學—유교적 종교개혁의 맥락〉(《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 사상》 韓國社會史學會論文集 17, 문학과지성사, 1990).

朴孟洙, 〈東學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韓國思想》 22, 1995).

백성들과 부녀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서학(천주교)에 입교하여 정신적 구원과 안정을 얻으려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850년대에는 조선에서 천주교도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서양세력과 서학의 위협이 保國의 문제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었다. 1840~1842년의 ‘아편전쟁’에서의 청국의 패전으로 인한 1842년의 南京條約, 1850년의 洪秀全의 太平天國 혁명운동, 1856년의 ‘애로우(Arrow)호 사건’과 그로 인한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廣東 점령과 天津 공격의 소식은 조선에도 알려졌다. 중국은 이 서양의 무력 공격에 굴복하여 1858년에 天津條約을 체결해서 천진을 비롯한 10개 항구의 서양 열강에의 개항과 양자강의 서양 상선에서 개방을 약속하였다.

중국 조정이 천진조약의 비준과 실행을 지연시키려고 하자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다시 무력 공격을 시작하여 1860년 7월에는 천진을 점령하고, 이어서 8월에는 청국의 수도 北京을 점령하여 버렸다. 청국 황제는 황급히 熱河로 피난을 가고, 청국은 결국 서양 열강의 무력침략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1860년 9월에 굴욕적인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서양 열강의 요구를 다 들어준 후 그들을 수도 북경에서 철수시켰다.

북경조약의 내용에는 천진의 개항, 구룡반도의 할양, 배상금 1,600만 달러의 지불, 서양인에 의한 중국인 노동자의 모집과 해외 송출 허용 이외에, 무엇보다도 서양인들에게 천주교(서학) 포교의 완전한 자유와 교회당 설립 자유의 허용 및 서양 신부들의 토지·가옥의 건조 또는 임대차 자유의 허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양 열강은 북경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천주교 포교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것이었다.

조선의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동양의 최강국이라고 믿어 왔던 중국이 서양의 무력침략 앞에서 완전히 굴욕적으로 굴복하여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대한 충격을 받았으며, 조선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기의식을 절감하게 되었다.

최제우는 그의 동학의 창도와 포교의 시작이 서양 열강의 동양과 중국 침략으로 말미암은 위기의식과 관련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기록하였다.

庚申(1860)년에 이르러 전하여 들으니 서양 사람들은 天主의 뜻이라고 하여 부귀를 취하지 않고 천하(중국)를 공격하여 취해서 (서학의) 教堂을 세우고 그 道(서학의 도)를 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럴까’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에 경신년 4월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무슨 병인지 병의 증세를 알 수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디선가 갑자기 仙語가 문득 귀에 들려왔다(〈布德文〉, 《東經大全》).

여기서 명백한 것은 최제우의 동학의 창도가 1860년 전후의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 및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점령 사건’과 그에 따른 북경조약에 의거한 서학(천주교)의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포교의 허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제우는 서양 열강의 중국에 대한 무력침략과 북경점령 사건에서 중국의 멸망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인 조선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절감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서양 열강의 동양 침입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민족적 위기를 그 나름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는 민족적 위기에 대한 그 자신의 위기의식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서양은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공격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천하(중국)가 모두 멸망하면 또한(우리 나라도) 입술이 없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輔國安民의 계책을 장차 어떻게 뉘까(〈布德文〉, 《東經大全》).

최제우는 여기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된다”는 동양식 표현을 빌어 중국을 입술, 조선을 이에 비유하면서, 서양 열강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여 막강한 힘으로 침입해 오고 있으니, 입술인 중국이 망할 경우 조선이 심각한 위기와 위협에 놓이게 됨을 지적하고 ‘輔國安民의 계책’으로서 동학의 창도를 추구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최제우는 그의 저작 〈論學文〉에서도 서양 세력의 동양 침입에 의한 민족적 위기의식을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여 기록하였다.

저 庚申(1860)년 4월에 이르러 천하가 혼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즈음에, 또한 괴이한 말이 세간에 요란하게 퍼져 이르기를 ‘서양 사람들은 道를 이루고 德을 세워 그 造化가 미치는 곳에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무기로 공격하여 전투를 함에 그 앞에 맞설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중국이 멸망하면(우리 나라도) 어찌 입술이 없어지는 근심이 없겠는가.

이는 딴 연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서양인)은 道가 西道라고 칭하고 學은 天主라고 칭하며 敎는 聖敎라고 하니, 이것은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은 것이나 아닐까 하는 말도 있었다.

이러한 말들을 낱낱이 들려면 끝이 없는지라, 나도 또한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에,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밖으로 靈氣가 몸에 집하고 안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리는데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았다 (〈論學文〉, 《東經大全》).

최제우가 쓴 위의 세계의 글에서 보면, 우선 최제우는 중국을 멸망시키고 있는 서양의 힘을 두개의 차원에서 보았는바, 그 하나는 道(西道)·學(天主學)·敎(聖敎) 등 서학의 힘과, 다른 하나는 武器·戰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서양의 武力이었다. 최제우는 이 두개의 차원의 서양의 힘을 모두 관찰하면서 특히 ‘서학의 힘’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최제우는 西學이 서양의 힘의 근원적 원천이며 서양의 무력도 궁극적으로는 이에 기초하여 유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최제우는 서양의 서학의 힘이 서양의 무력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중국을 멸망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학의 힘이 조선에 들어와 입술을 잃어버린 조선을 멸망시키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여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었다.

최제우는 서학이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서학의 창도자’보다 뒤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서학의 침입에 대한 대결의식에 지배되어 ‘보국만민의 계책’의 하나로써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東學을 창도한 것이었다.

다음, 동학 창도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들어야 할 것은 조선왕조 전근대사회의 해체과정에 수반하는 ‘체제적 위기’의 상황들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조선왕조의 전근대 신분사회는 급속한 해체과정이 진행되어 도처에서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통치계층인 양반관료들은 그들 자신이 제정

한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위반하고, ‘三政의 문란’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가렴주구를 기탄없이 자행하여 백성들을 더욱 도탄에 빠트렸다.

양반관료들의 절제없는 가렴주구와 학대에 견디지 못한 하위신분층과 농민들은 이에 대해 ‘민란’으로 맞섰기 때문에, 19세기는 전국 도처에서 ‘민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조선왕조의 통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켜 나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양반관료들이 정립한 전근대의 도덕이나 윤리는 하위신분층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양반신분층 자신들 사이에서도 잘 준수되지 않고 무시되어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였다. 이 위에 19세기 초엽에는 콜레라 전염병까지 유행하여 조선왕조의 체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조선왕조 전근대사회의 체제적 위기 상황을 관찰하고, 조선왕조 4백년은 이미 時運이 다해 이제 막 종언을 고하려는 말세에 이르렀으며, 그 속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삼각산 한양도읍 4백년 지난 후에 下元甲 이 세상에 남겨간 자식 없이 …(〈夢中老小問答歌〉, 《龍潭遺詞》).

우리 나라는 惡疾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사시사철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역시 傷害의 운수이다(〈布德文〉, 《東經大全》).

一世上 저 인물이 도탄중 아닐런가(〈勸學歌〉, 《龍潭遺詞》).

최제우는 조선왕조사회의 지배신분인 양반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君子’를 말하고 ‘도덕’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우수한 일이라고 부정하였다. 그는 조선왕조의 온 세상이 ‘말세’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각자 딴 마음을 품어 天理에 따르지 않고 天命을 돌아보지 않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관찰하였다.

우습다. 저 사람은 地閥이 무엇이게 君子를 비유하며, 文筆이 무엇이게 道德

을 의론하노(〈道德歌〉, 《龍潭遺詞》).

이 근래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각기 딴 마음을 품어 天理를 따르지 아니하고 天命을 돌아보지 아니할 새, 나도 항상 두려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布德文〉, 《東經大全》).

최제우는 당시 조선왕조사회의 부패와 타락과 혼돈에 대하여, “아서라 이 세상은 堯舜之治라도 부족이오 孔孟之德이다”²⁾ 라고 개탄하였다.

최제우의 동학 창도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들어야 할 것은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상과 종교를 잃고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덕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제우는 종래의 학문과 종교인 유교와 불교는 이미 시운이 다하여 낡고 병들어서 생동력과 생명력을 상실하여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학문과 종교가 될 수 없다고 관찰하였다.

儒道 佛道 累千年에 運이 역시 다했던가(〈教訓歌〉, 《龍潭遺詞》).

온 세상 사람들이 각기 딴 마음을 품어 천리에 순하지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니(〈布德文〉, 《東經大全》).

최제우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잃은 백성들에게 西學은 위험한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최제우는 서학을 서양 열강의 동양침입을 인도하는 종교적 힘이며 침병이고 서양세력의 힘의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 조선의 일부 백성들이 정신적 지주를 구하여 서학에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결국 保國安民하고 廣濟蒼生하는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창도할 필요를 절감하고, 스스로 이 세 사상과 종교의 창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 東學을 창도하게 된 것이었다.

2) 〈夢中老小問答歌〉, 《龍潭遺詞》.

2) 동학의 창도 과정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는 1824년 지금의 경상북도 월성군 건곡면 柯亭里에서 몰락한 양반의 庶子로 출생하였다. 최제우의 가문은 조선 초기에는 지방 향리이었다가, 최제우의, 7대조인 崔震立(1568~1636)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에 참가해서 공을 세우고 1594년에 武科에 합격하여 武班으로 상승하였다. 최진립은 매우 애국적인 인물로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국왕이 청군에 의해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을 구하려 북상하다가 경기도 용인에서 청군을 만나 전투중 전사하였다. 호란 후에 국왕은 그에게 병조판서를 추서하고 貞武公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그후 이 집안은 文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최제우의 아버지 崔鎰(1762~1840)은 뛰어난 유생으로서 과거에 5, 6차례나 응시했으나 번번히 낙방하였다. 최옥은 두번째 부인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번째로 이웃의 과부 韓씨를 맞아들여 63세에 마침내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이 최제우였다.³⁾

최제우는 8세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재능이 매우 탁월하여 수많은 고전들을 일찍 독파했으나, 10여 세를 지내자마자 그의 사회적 신분 이 차별받는 서자임을 알고 사회신분제도의 모순을 개탄하기 시작하였다. 최제우 스스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8세에 입학해서 허다한 萬卷詩書 無不通知 하여내니 生而知之 망불하다. 10세를 지내나니 총명은 司曠이오 智局이 비범하고 才器 過人하니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 세상에 君不君 臣不臣과 父不父 子不子를 주야간에 탄식하니 우울한 그 회포는 흥중에 가득하되 아는 사람 전혀 없다(〈夢中老小問答歌〉, 《龍潭遺詞》).

3) 《慶州崔氏大同譜》 권 1·4.

李敦化編, 《道教創建史》.

吳知泳, 《東學史》(永昌書館, 1940).

崔東熙, 〈水雲의 基本思想과 그 狀況〉(《韓國思想》 12, 1973).

당시의 사회제도와 관습은 서열차별제도로 말미암아 서자들을 사회적·법제적으로 극심하게 차별하였다. 서자들은 아무리 재주가 비범하고 실력이 있어도 과거에 응시할 자격부터 박탈당하였다. 최제우가 10여 세를 지내자, 자기가 이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서자출신이며 아무리 재주가 천재이고 공부가 탁월해도 과거에는 응시할 자격조차 없으며 사회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신분임을 알았을 때, 그의 남모르는 절망과 탄식과 울분이 어떠했었는가는 그 자신이 기록 그대로이다.

최제우의 아버지는 불우한 최제우를 위하여 13세 때에 울산의 박씨에게 결혼시켰다. 최제우는 일찍이 6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또 17세 때에 아버지 최옥을 잃어 고아가 되었다. 부친의 3년상을 지내는 중 집에 화재가 일어나 부친의 서책들이 모두 소실당하였다. 최제우는 부친의 3년상을 마치자마자 부인을 처가에 맡기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려고 집을 나와 전국 유랑의 길에 나섰다. 이 때가 최제우 나이 20세(1843) 때였다.

최제우는 이 때부터 다시 부인에게 돌아간 31세(1854) 때까지 만 11년간 전국 각지를 유랑하며 온갖 일과 공부를 다해가며 자기의 활로를 찾아보려고 탐색하였다. 최제우는 이 시기의 그의 행적에 대하여 百千萬事を 다해 보았으나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기록하였다.⁴⁾ 최제우가 11년간 전국을 방랑하면서 한 일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처음에는 무술을 익히어 이따금 서자들에게 응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武科에라도 응시해 볼까하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도 익혀 보았다.⁵⁾ 시장에 나가 상업도 해 보았는데,⁶⁾ 포목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술과 침 등 한의학도 공부해 보았다. 점치는 방법 등 잡술에도 손을 대 보았다. 도통을 하려고 仙敎(道敎)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국의 유명한 道士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과 암자를 돌면서 高僧을 만나 불교의 진리를 깨쳐 보려고도 하였다. 그는 심지어 西學에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西學(천주교)도 섭렵해 보았다.⁷⁾ 그러나 최제우는 고생만 하고 그 어느 것에도 성공하지 못

4) 〈敎訓歌〉, 《龍潭遺詞》.

5) 李敦化, 《天道敎創建史》(제1편, 1933), 4쪽 참조.

6) 吳知泳, 《東學史》, 1쪽 참조.

했으며, 그 어느 곳에서도 활로를 찾지 못했고, 득도도 하지 못하였다. 그는 고향과 처자를 떠난지 11년만에 실의와 절망에 빠져 31세 때인 1854년 9월에 울산의 처가에 기대어 살고 있는 처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최제우의 11년간의 전국 유랑은, 비록 득도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1년간의 유랑을 통하여 당시의 조선왕조 사회의 실상과 백성들의 처지를 유감없이 체험하여 자기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유랑생활의 결산에 대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遍踏江山 아니하면 人心風俗 이런 줄을 아니 보고 어찌 알꼬. 대저 인간 百千萬事 보고 나니 恨이 없네(〈勸學歌〉, 《龍潭遺詞》).

최제우는 11년의 전국 유랑을 끝내고 귀가하면서 기존의 사상과 종교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바에는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여 保國安民, 廣濟蒼生 할 수 있는 새로운 道를 자기 자신이 창도하려는 뜻을 세웠다. 그는 귀가 후 5년간 울산과 그 부근의 명산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색하며 치성을 드렸다. 그러나 최제우는 득도에 성공하지 못했다.

최제우는 절망적 상태에서 36세 때인 1859년 10월에 처자를 이끌고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다.⁷⁾ 그러나 그가 태어난 柯亭里의 팔아버린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가정리 남쪽 龜尾山 계곡에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지어놓고 책을 읽던 정자인 龍潭亭을 찾아가 거처를 정하였다. 부모가 남겨준 유산마저 모두 탕진하고 득도에도 성공하지 못한채 부모가 남겨놓은 정자에 초라하게 찾아와 몸을 기탁한 불효막심한 자신을 까막까지들도 조롱하는 듯 했다고 최제우는 스스로 기록하였다.⁹⁾

최제우는 이 구미산 용담정에서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道를 깨치지 못하면 세상에 다시 나아가지 않을 굳은 결심을 한 다음, 이름을 본래의 '濟宣'에서 '濟愚'로 고쳤다. '우매한'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자를 '性

7) 吳知泳, 《東學史》, 2쪽 참조.

8) 〈修德文〉, 《東經大全》.

9) 〈龍潭歌〉, 《龍潭遺詞》.

默'이라고 지었다.¹⁰⁾ 그는 이곳에서 정결한 곳에 제단을 차려놓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으며, 매일같이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득도를 위한 명상과 정신통일을 계속하였다. 그의 이러한 비장하고 처절한 求道의 노력으로 그의 몸은 쇠약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편에 들리는 소문은 안으로 조정의 정치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밖으로 서양세력은 다시 중국을 침략하여 굴복시켜서 중국 수도 북경에 천주교회당을 높이 짓고 포교를 활발히 한다는 소식이었다.

최제우에게 마침내 득도의 날이 왔다. 1860년 음력 4월 15일(양력 5월 25일), 최제우가 치성을 드리고 정신집중을 하는 중에 정신이 無我之境에 든 가운데 공중에서 천지가 진동할 때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제우가 벌떡 일어나 물으니 대답이 들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道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고 하면서 ‘東學’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최제우는 이를 스스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월이라 초5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 (〈安心歌〉, 《龍潭遺詞》).

뜻밖에도 庚申년(1860) 4월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무슨 병인지 병의 증세를 알 수 없고 말로 형용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디선가 갑자기 神仙의 말씀이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캐어 물어보았더니 하나님(上帝)이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上帝)이라 하니 너는 하나님(上帝)을 모르느냐’고 하였다.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 역시 지금까지 功이 없으므로 너를 世間에 태어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法을 가르치게 하노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西道로써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까’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布德文〉, 《東經大全》).

최제우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로 들려왔으나, 아내와 아들 등 집안 사람들에게 물으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

10) 〈教訓歌〉, 《龍潭遺詞》.

다고 하였다. 최제우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자기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욱 확신하였다.

최제우는 나라를 보전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할 새로운 道를 찾으려고 몇년 동안을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며 정신통일을 하여 명상과 사색을 거듭해 오다가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문득 靈感이 떠올라 새로운 道의 원리를 깨치고 희열에 넘쳐서 그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는 결국 온갖 정신적 작업과 노력 끝에 종래의 유교·불교·도교(선교)를 종합 지양하고 음양오행설, 역학사상, 풍수지리설, 영부신앙 등 각종 동양사상을 흡수 지양해서 그 자신의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창도한 것이었다.

최제우는 자신의 새로운 도를 창도하자, 그 이름을 ‘東學’, ‘天道’라고 명명하고, 문답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기를, 그렇다면 道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天道이니라.

문기를, 西洋의 道와 다름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서양의 學은 우리 道와 같은 듯 하나 다름이 있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 實이 없다. 그러나 運數인즉 같고, 道인즉 한가지로되, 理인즉 다르니라. ...

문기를, 道는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름을 ‘西學’이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나는 東에서 태어나서 東에서 도를 받았으니 道는 비록 天道이나 學인즉 ‘東學’이다. 하물며 지구가 동과 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를 어찌 동이라 하며 동을 어찌 서라 하리오.

孔子는 魯나라에서 태어나 鄒나라에서 도를 뵈으므로 鄒魯의 風이 이 세상에 전하여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道는 이 곳에서 받아 이 곳에서 펴고 있으니 어찌 西學이라고 이름하겠는가(〈論學文〉, 《東經大全》).

최제우의 위의 설명을 보면, 그가 창도한 동학과 서양의 서학은 道와 時運은 같고 學과 理만 다른데,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과 ‘문화’이다. 그에 의하면 道는 ‘天道’로서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구가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

어져 있으니 ‘동학’과 ‘서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의 ‘東’은 ‘東洋’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제우는 새로운 도의 창시자인 자신이 ‘東’에서 태어나서 ‘東’에서 도를 받았으니 學이 또한 ‘東學’이 된다고 하였다. 이 때의 東은 ‘東國’(朝鮮)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제우의 설명에 의하면, 마치 공자가 魯나라에서 태어나 鄒나라에서 유학의 도를 뵈기 때문에 공자의 유학에 鄒魯의 문화가 전하여 내려오는 것과 같이 최제우 자신은 이 땅 동국(조선)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도를 받아 이 땅(동국=조선)에서 도를 펴니 역시 ‘동학’이라고 하였다. 이 때의 東도 또한 동국(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은 두 개의 의미를 하나로 통합한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東學의 天道學’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동국=조선의 천도학’이라는 의미이다. 동학의 ‘東’에는 ‘東洋’과 ‘東國’의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최제우의 자기가 창시한 ‘동학’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커서 자기의 학문을 자주 孔子의 학문에 비유했으며, 자기의 동학을 이제도 듣지 못했고 예전에도 듣지 못했으며 이제도 비교할만한 것이 없고 예전에도 비교할만한 것이 없는¹¹⁾ ‘만고에 없는 無極大道’¹²⁾라고 스스로 표현하였다.

최제우는 그의 ‘동학’을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과 농민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6개월 동안에 약 3천 명의 인사들이 최제우로부터 도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최제우는 이때의 첫 성공을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일에 비유하였다.¹³⁾

최제우의 첫 포교가 큰 성공을 거두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동학을 天主敎=西學의 일종으로서 邪敎라고 모함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그는 동학을 서학이라고 몰아붙이는 세상 인심과 관헌의 핍박을 감당하기 어려워 1861년 말부터 1862년까지 전라도 남원에 피란하였다. 최제우가 경주로 돌아온 후

11) 〈修德文〉, 《東經大全》.

12) 〈論學文〉, 《東經大全》.

13) 〈修德文〉, 《東經大全》.

1862년 9월에 경주관헌은 邪學을 퍼뜨려 흑세무민한다는 죄목으로 최제우를 체포했으나, 수백 명 교도들이 경주 군아에 몰려가 집단항의를 했기 때문에 석방하였다.

최제우는 교도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자 1862년 12월에 경주·영덕·영해·대구·청도·청하·연일·안동·단양·영양·신녕·고성·울산·장기 등지에 接所를 설치하고 接主를 두어 이른바 ‘接主制’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의 중앙조정에서는 동학세력의 급속한 성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1863년 1월 중앙관리를 경주에 파견하여 최제우를 체포하였다. 처음에는 최제우를 서울에 데려다 처형할 계획이었다가 계획을 바꾸어 대구감영에 투옥 시키고 1864년 2월 29일 참형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대구감영은 1864년 3월 10일 최제우에게 참형을 집행하여 최제우는 자기가 창도한 東學에 순도하였다.

최제우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참형을 맞으면서 경상관찰사를 훈계하여, “나의 하는바 道는 나의 私心이 아니오 天命이니 巡相은 그 뜻을 알라, 오늘날은 비록 순상이 나를 죽이나 순상의 손자대에 가서는 반드시 내 道를 따르고야 말리라”¹⁴⁾고 최후의 말을 남겼다. 최제우의 자기 ‘동학’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는가를 알 수 있다.

최제우의 순교 이후 1864년부터 동학은 제2세 교주 崔時亨에 의하여 지도되고 포교되었다. 최시형은 관의 탄압을 피하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촌에 잠행하면서 비밀리에 포교하였다. 조선조정은 동학을 사학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불법화하고 동학에 입도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백성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세력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동학은 당시의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상으로 형성되어, 당시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입도하고 싶어하는 사상적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4) 吳知泳, 《東學史》, 18쪽.

3) 동학사상

동학사상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강렬한 민족주의와 당시 백성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진 대외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동학의 서학과 서세에 대한 관점을 보면, 서양을 위정척사사상처럼 무조건 사학으로 보거나 奇技淫巧에 의존한 금수와 같은 세력으로 경멸하지 않고, 도리어 ‘道成德立하여 無事不成하고 전쟁과 전투에서도 無人在前하는’¹⁵⁾ 막강하고 두려운 세력으로 보았다. 또한 서학의 운수도 동학과 동일하게 융성하는 운이오, 道는 서학과 동학이 모두 ‘天道’라고 본 것은 동학이 가진 보편주의적 天道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자기 종교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모든 종교들보다 훨씬 더 보편주의적 객관적 관점을 정립한 것이었으며, 위정척사처럼 서양문명을 금수·오랑캐의 문화라고 폄하하지 않고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을 대등하게 본 합리적 사고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서학은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려 하지 않고 죽은 후에 건설하려 하고, 개인의 구원만 빌어 부모형제를 제사할 줄 모르며, 서세의 앞장 노릇을 하는 동학보다 부족한 종교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한편 최제우 동학의 천국에 대한 관점은 과거 청의 ‘병자호란’ 침략에 대하여 “汗夷(만주 오랑캐)의 원수를 갚아보세”라고 하여 만주족의 침략사실에 대한 적의를 나타내었다.

대보단에 맹세하고 汗夷 원수 갚아보세. 重修한 汗夷碑閣 헐고나니 초개 같고 붓고 나니 박산일세(〈安心歌〉, 《龍潭遺詞》).

그러나 明·淸을 포함한 현실의 중원을 차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이를 ‘입술과 이의 관계’로 파악하며, 서세와 서학의 침입으로 중국이 멸망해가는 추세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이라는 입술이 없어지는 근심에 직면했다고 설명하였다.¹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 조선을 ‘입술과 이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15) 〈論學文〉, 《東經大全》.

16) 위와 같음.

도 ‘조선을 이’, ‘중국을 입술’에 비유하여 언제나 조선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최제우 동학의 일본에 대한 관점은 과거의 침략에 매우 강력한 적개심을 나타내었으며, ‘개같은 왜적놈’이라고 표현하였다.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개 같은 왜적놈아 너의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룻해서 무슨 은덕 있었단고(〈安心歌〉, 《龍潭遺詞》).

내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기험할고, 거룩한 내집부녀 자세 보고 안심하소. 개 같은 왜적놈이 전세 壬辰 왔다 가서 술잔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먹는 줄, 세상사람 누가 알고 그 역시 원수로다(〈安心歌〉, 《龍潭遺詞》).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제우는 만일 미래에 일본의 재침략이 있을 경우에는 그가 죽은 후에 영혼이 되어서도 이를 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또한 神仙되어 飛上天한다 해도, 개 같은 왜적놈을 하나님께 造化받아 一夜에 滅하고서 傳之無窮하여 놓고(〈安心歌〉, 《龍潭遺詞》).

최제우가 만일 그가 죽은 후에 일본이 재침략하는 일이 있으면 영혼이 되어서라도 이 ‘개같은 왜적놈’을 하룻밤 사이에 멸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龍潭遺詞》의 〈安心歌〉로 노래하여, 그후 모든 동학도들이 이 노래를 찬송가처럼 복창했으니, 동학이 얼마나 일본의 재침략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졌었는가를 알 수 있다.

동학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한사코 이를 싸워 물리치려는 강력한 저항민족주의를 정립하여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의 민족주의를 더욱 근대적으로 만들어 하위신분층과 농민층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한 것은 그 평등사상과 휴머니즘(인본주의)이었다.

동학사상은 우주와 만물이 모두 ‘至氣’로 구성되었다는 ‘至氣一元’論을 주창하면서 ‘天一合一’論을 도출하고 ‘侍天主’사상을 정립하여 매우 독창적인 구조의 평등사상과 휴머니즘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신분제도의 폐지와 인간다운 대우를 갈망하는 농민층의 요구에 잘 부응하였다. 즉 최제우는 동양

의 전통적인 ‘天一合一’사상에서 종래에는 ‘天’에 무게와 중심을 두었던 것을 그는 이를 역전시켜 ‘人’에 무게와 중심을 둬으로써 ‘人’이 모두 마음 속에 ‘天’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사상을 만들었다. 동학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신분·계급·남녀·노소·빈부에 전혀 차별없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이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동학의 새로운 평등사상을 정립한 것이었다. 예컨대 신분평등의 경우를 보면, 양반도 그의 마음 안에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양인(평민·상민)과 천민·노비도 마음 안에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양반과 양인과 천민·노비는 서로 완전히 평등하다고 설파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양인·천민·노비 등 하위신분층과 농민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은 더욱더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우리 도를 깨달을 자는 호미를 들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오리라”¹⁷⁾고 했으며, “富한 사람과 貴한 사람과 글 잘하는 사람은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¹⁸⁾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은 여성도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남녀평등을 강조했으며, 어린이는 ‘어린 하나님’이라고 하여 어린이 존중을 강조하였다.¹⁹⁾

또한 동학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사람이다’라는 ‘人是天’사상을 정립하여 인간의 지고지귀한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최시형은 최제우를 계승하여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人是天). 사람 섬기기를 하나님같이 하라(事人如天)”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내 꿈인들 어찌 선생(최제우)의 遺訓을 잊으리오. 선생이 일찍이 遺敎가 있어 가로되 ‘사람은 하늘이니라. 그러므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하였도다(李能和, 《天道敎創建史》, 제2편의 37~38쪽).

17) 吳知泳, 《東學史》, 42쪽.

18) 위와 같음.

19) 崔時亨, 〈內修道文〉 및 〈內則〉.

愼鋪度, 〈崔時亨의 ‘內則’ ‘內修道文’ 遺訓〉(《韓國學報》 12, 《東學史》), 64쪽 참조.

동학의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人是天’사상은 하나님을 사람 밖에 있는 별개의 主宰者로 설정하고 사람은 하나님 밑에서 그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친 모든 다른 종교들의 사상과는 크게 다른, 고도의 휴머니즘의 사상이었다. 동학은 인간을 지고지귀한 하나님과 同格에 설정함으로써 그 때까지 전세계 모든 종교들이 창안한 휴머니즘 중에서도 최고도의 휴머니즘을 창도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동학의 위와 같은 독특한 구조의 평등사상과 최고도의 휴머니즘은 당시 양반관료들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받으며 천시되어 오던 평민들과 천민들에게 인간의 평등성과 지고지귀함을 가르쳐 주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로부터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

또한 최제우의 동학은 ‘後天開闢’ 사상을 정립하여 보급하였다. 최제우는 인류역사를 ‘先天’과 ‘後天’으로 나누어 ‘선천’의 시대 5만년이 다하면 時運에 따라 ‘후천’ 5만년이 시작되는 ‘개벽’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 왕조 말기 자기의 시대를 ‘선천’시대가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시대라고 보았으며, 그의 ‘동학’의 득도와 포교의 시작이 ‘후천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제우 동학의 이러한 ‘후천개벽’ 사상에는 일반적으로 ‘선천세계’를 모두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의 뜻을 그에 내포했다는 의미에서 혁명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²⁰⁾

또한 최제우의 동학은 天國은 서학에서와 같이 죽은 후에 하늘에 세울 것이 아니라 생전에 地上에 세워야 한다는 ‘地上天國’사상을 정립하여 강조하였다. 최제우는 사람들이 ‘守心正氣’하여 수양을 하고 동학에 귀의하여 ‘地上神仙’과 ‘地上君子’가 되면 이 땅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동학이 지상에다 동학에 입도한 교도들을 중심으로 ‘군자공동체’의 유토피아 건설을 추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학의 위와 같은 ‘후천개벽’사상과 ‘지상천국’사상은 당시 동학의 민족주의와 평등사상과 휴머니즘에 의하여 해방과 자유의 의지를 갖게 된 하위신분층의 농민들에게 외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이 땅 위에 건설

20) 金龍德, 〈東學思想研究〉(《中央大論文集》9, 1964) 참조.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했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는 후천개벽 후의 지상천국의 오는 시절을 다음과 같이 가사로 기록하였다.

富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貧賤이오, 貧하고 賤한 사람 오는 시절 富貴로세(〈敎訓歌〉, 《龍潭遺詞》).

동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구조의 민족주의와 휴머니즘과 평등사상과 개혁사상·지상천국사상 등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근대적 사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열강을 비롯한 외세의 침입을 염려하면서 양반관료들의 학대와 차별 앞에서 신음하며 사회신분제 폐지와 평등과 인간적 대우를 갈망하고 있던 하위신분의 농민들에게 고도의 ‘선택적 친화력’을 갖고 결합되어 수용되었다. 농민들은 동학을 그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고 용기와 자부심을 주는 복음과 구세종교로 생각하여 연이어 입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 조정은 1864년 동학을 불법화하고 이의 시행을 엄금하여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하위신분층의 농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에 입도하여 최제우의 순교 이후에도 산촌과 농촌을 중심으로 농민들 사이에서 동학세력은 날로 증대하게 되었다.

동학사상은 이상과 같이 서양 열강의 동양 및 조선왕국 침입에 대한 사상적 대응의 한 양식으로 형성 창도된 한국민족의 매우 독창적인 사상과 종교였다. 동학은 保國安民과 廣濟蒼生을 목적으로 독창적인 민족주의와 근대적 평등사상 및 휴머니즘을 정립하고 새 시대를 열려는 후천개벽 사상까지 갖추어 광범위한 하위신분층의 농민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후에 동학세력이 서양 열강과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고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실제로 ‘보국안민’·‘광제창생’의 민족운동을 일으키며 거대한 영향을 전국에 끼치도록 성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愼鏞廈〉